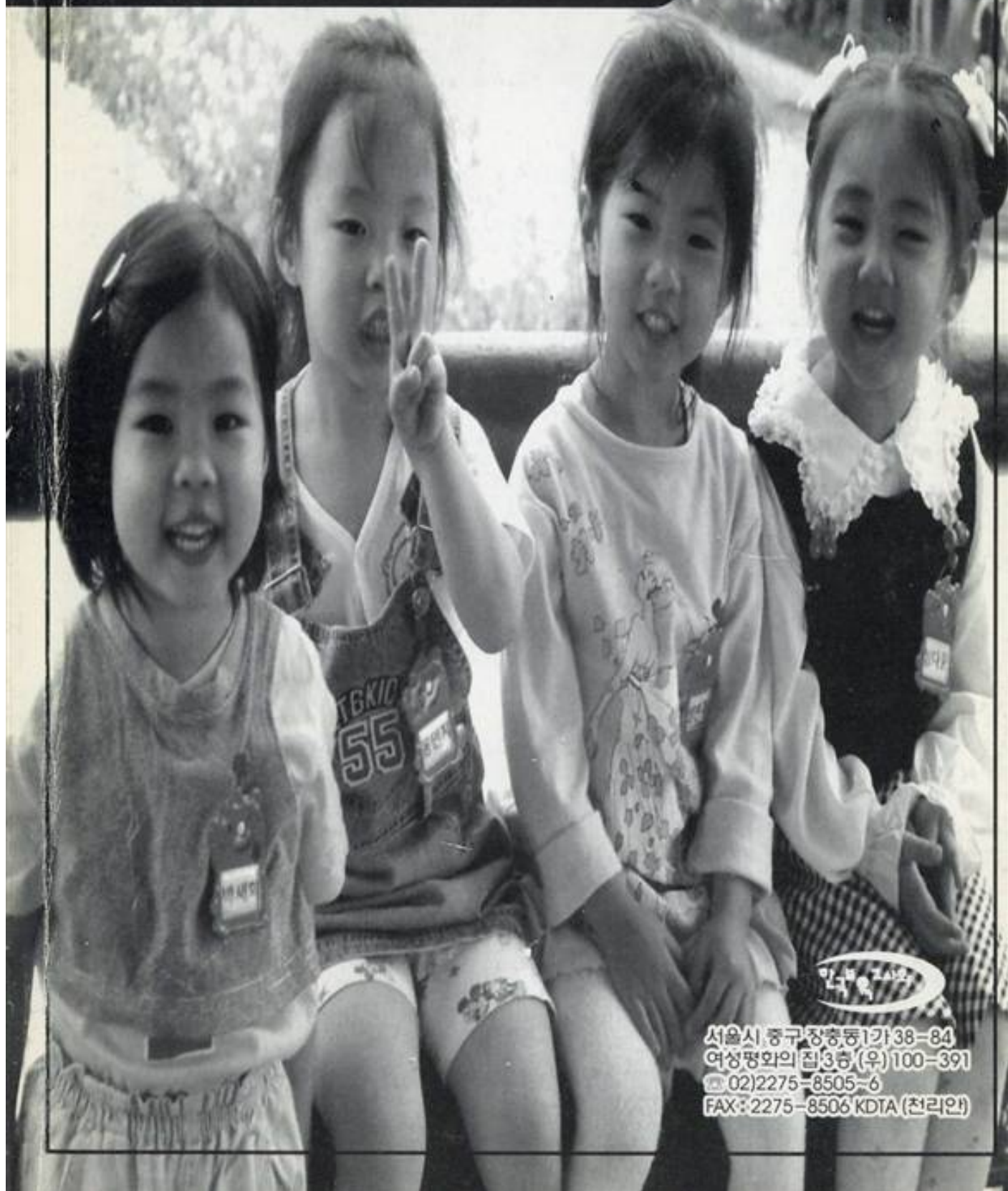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1999 5/6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 2275-8505-6
FAX: 2275-8506 KDTA (천리안)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둡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 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9.5/6

- 1. 보육활동의 중요성
- 2. 보육활동의 목표
- 3. 보육활동의 내용
- 4. 보육활동의 방법
- 5. 보육활동의 평가
- 6. 보육활동의 환경
- 7. 보육활동의 안전
- 8. 보육활동의 건강
- 9. 보육활동의 문화
- 10. 보육활동의 협력
- 11. 보육활동의 발전
- 12. 보육활동의 결론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6 FAX: 2275-8506 KDTA(천리안)



한국보육교사회



계절의 여왕이 5월이라면,
우리아이들은 공기와 흙, 햇빛
아래서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진제공: 서울 한미어린이집)

1999년 5/6월호(통권 69호)/첫발행 1992년 5월 25일/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정희연/편집위원 박정애, 이경녀, 김희정/펴낸날 1999년 5월 1일

우리네

아이들

'99년 5/6월호

통권 69호

권두언	4
보육정책1	6
보육정책2	10
특집	15
현장교육1	47
현장교육2	51
현장소식1	54
현장소식2	55
현장소식3	57
현장소식4	59
어린이와 건강	60
좋은 그림책소개	68
세상읽기	70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	72
사이버 정보망	73
목소리	74
한국보육정보연구소	76
보육계풍향	82
소식과 소식	83
편집부에서	88

한국보육교사 여러분께 드리는 에세이	윤선영
교사임금체계(연봉제)에 관한 질의와 답신	한국보육교사회
서울특별시보육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시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 -새로운 보육의 지평을 넓히다.	편집부
자연활동과 바깥놀이	임미란
방과후 활동 사례발표	윤은주
광동어린이집이 계절마다 캠프를 가는 이유는?	이기원
어린이날 행사 묶음	편집부
예년과 다르게 치뤄진 공주의 제3기 보육학교!!	광주 전남보육교사회
스승의 날을 자축하며	진경선
사고와 응급처치	민용식
<아기 돼지 삼 형제>와 <아기 돼지 세 자매>	오윤정
'아이사랑'에 대한 나의 고백	주예민
아현어린이집에서 생긴일	아현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수많은 언어: 레지오에밀리아 유아교육	김지희
어린이집을 다시 시작하며	장정숙
베를린 리포터 -베를린보육시설과 교육기관 탐방기	김영명
보육계풍향	편집부
소식과 소식	편집부
편집부에서	편집부

한국보육교사 여러분께 드리는 에세이

윤선영 · 한국보육교사회 전문위원

내가 한국보육교사회와 관계를 맺은 지가 돌이켜 보니 10여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될 당시 나는 독일에서 공부하던 중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독일과 한국의 보육에 대한 학문적·실제적 “정보교환”을 시작으로 나의 석사논문을 독일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분야로 세부전공을 결정하게 하였다. 그 후 박사논문은 꼭 한국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보육의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인 논문을 쓰기로 결심하였고, 보육교사들과 협력작업을 통해 독일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박사학위를 마치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학문과 실재가 접합되는 부분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나의 직업적인 과제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보육교사들과의 작업과 보육교사양성원 감사생활은 나로 하여금 보육교사들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유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나는 (독일이 되었든 한국이든 간에) 보육교사들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느낀다. 그 이유는 보육교사가 인간성장의 가장 중요한 발달기인 영유아를 그것도 하루종일 돌보는 직업적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지지, 지원, 인정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그러한 모순된 사회적 기대, 어머니들의 교육에 대한 조바심, 보육시설의 종적인 운영체계, 그리고 어린이들이 겪어야 할 가족과 시대적·사회적 영향을 “생활”과 “현실”로 체험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불투명한 교사의 상황에서 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들은 타성에 젖은 하루의 일과가 “습성”으로 굳어진 것을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면서, 또는 의식적으로 그것과 싸우며 자신과 자신의 직업활동에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면서 무기력감과 분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감정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캄캄 캄캄 놀라게 된다. 그와 비슷한 경험을 아마도 많은 교사가 (나를 포함하여)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히 낙천적인 말을 하고 싶다. 한국의 보육시설은 미래의 한국인을 양육하는 커다란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곳이다. 만일 50만 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5만 여명의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어린이들과 의미 있는 삶을 보낸다면, 그것의 시간적 공간적 영향력은 무한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보육의 여건과 보육교사들의 상황은 어쨌든 과거에 속한다. 미래는 보육교사들과 어린이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

한국의 보육시설은 미래의 한국인을 양육하는 커다란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곳이다. 만일 50만 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5만 여명의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어린이들과 의미 있는 삶을 보낸다면, 그것의 시간적 공간적 영향력은 무한할 것이다.

가에 달려있다. 바로 그 부분에서 교사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동료교사들, 원장, 부모와의 협력작업으로 키울 수 있는 저력이 생길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의 보육교사들이 있었기에 “인간적인” 학위논문을 쓰게 되었고, 그 때문에 좋은 평가도 받았다. 어려운 여건에도 연구에 참여하는 고통을 감수하신 보육교사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해서라도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변함없이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삶의 보람은 어떤 일을 해 낸 후 (내 경험으로는 오히려 허탈감이 더 컸다) 보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그 과정을 위해 한국보육교사들이 서로간의 인간적인 만남을 더욱 더 많이 공유했으면 한다.

교사임금체계(연봉제)에 관한 질의와 답신

한국보육교사회

울초 보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교사임금 체계(연봉제)에 관해 본회에서는 3월 초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로 질의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보육아동과로 부터 왔기에 질의서, 답변서 전문을 실습니다. 현장교사들의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길 바라며, 아울러 본회에서는 교사임금체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현장교사들이 의견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서

1. 지난해 말까지 보육교사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책기조는 보육의 질적성장을 위하여 향후 수년 내에 유치원교사의 임금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육교사의 질적성장이 바로 보육의 질을 가늠한다는 사실을 볼 때 이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국고보조 지원기준'이 각 시설로 통보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임금체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의 의문과 당장 임금삭감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는 도입할 제도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 사전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 그런 절차가 생략되어 보육현장에서는 더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금번 연봉제가 어떠한 경로와 절차를 거쳐 도입되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급작스럽게 실시된 연봉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방침에 있어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연봉제 실시에 대한 세부방침은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개별시설의 연봉제 실행에 대한 재량권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3. 주지하다시피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임금상황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보육교사는 유사직종인 유치원교사에 비해 68%정도의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습

니다. 이번 연봉제의 도입은 다시 평균 9%정도의 임금삭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보육교사관련 제도의 도입과 처우개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와 금번 연봉제의 도입은 상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향후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하는 과제와 연봉제의 도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알려 주십시오.

4. 연봉제의 실시가 국고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국고부담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금번 변화된 임금체계는 직원의 업적과 공헌도에 비례하는 업적중시형 임금체계이므로 그 성패는 평가제도의 공정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연봉제가 보육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 직종에 적용될 때에는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에 좀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보육교사의 업무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한 평가항목과 평가방식,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그에 따른 적합한 의사소통구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의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 부분에 대한 방침이나 계획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6. 보육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삭감의 문제보다 향후 보육교사의 신분이 '계약직 사원'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데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변화된 임금체제로 인하여 매년 고용계약을 새로이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한 이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민원회신

귀하가 99.3.29자로 우리부에 제출하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관련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국고보조 기준 도입 경로 및 절차에 관하여

○ 종전에는 매년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 지급방법을 「보육사업지침」에 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99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내용도 과거처럼 중앙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기준만을 정하여 보조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 각시설에서는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각기 부담토록하고 각시설에서는 보육교사의 호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보수기준을 정하여 지급토록 안내한 바 있으며, 이는 연봉제 개념과는 다름을 알려드리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2. 세부방침 및 재량권 범위에 관하여

○ 인건비 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는 '99년 보육사업안내 및 유권해석을 통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바있고, 시설은 제반 운영여건에 따라 종사자와 협의 보수를 추가 또는 감액지원 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설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인건비 책정기준과 관련하여 시도에 지시한업무연락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보건복지부

'99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월액 산정요령

■ 원칙

'99년도 보육사업안내 104쪽 『99사회복지시설 직원 월보수 직책별·근무연수별 국고보조기준』은 호봉별 봉급표가 아닌 국고보조기준표 국고보조기준액에서 사회보험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월액에 해당됨.

■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월액 산출방법

종사자 보수월액(C:국고보조 기준액의 약 85%내외수준)

=국고보조 기준액(A)-사회보험부담금(B:시설부담 법정기준)

■ '98년도 및 '99년도 보수월액 산정방법 비교

'98년도

- '98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봉급표('98지침 184쪽)기준
- 상여금(기말수당, 장근수당, 체력단련비)=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액
- 사회보험 부담금은 관계 법령 및 이에 수반된 조건표상 시설부담액을 보조기준으로 하고, 이에 대한 보조비율(교사45%, 원장 90%)로 산정
- 퇴직적립금은 '9지침에 따라 『본봉+상여금+장기근속수당』을 기준액으로 보조비율 산정(교사45%, 원장90%)
- '98년도 보수월액은 사회보험부담금(시설부담금)과 분리보조 되었기 때문에 보수월액에 가산하지 않음.

'99년도

- '98년도에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월액은 봉급표를 지침상에 명시하여 봉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을 보수월액의 국고보조기준으로 하고 이와는 별도로 시설(사용자)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 부담금은 법정기준액을 국고보조기준으로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수월액과 분리하여 보조하였으나
- '99년도에는 인건비와 법정기준의 시설부담 사회보험 부담금을 합산하여 이를 국고보조기준으로 규정함.
- 따라서, 시설(사용자)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기준의 사회보험 부담금은 종사자 보수월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성질이므로 『99년도 인건비 국고보조기준』에서 사회보험 부담금 법정기준액을 제외한 금액을 종사자 보수월액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종사자 부담분 사회보험 부담금은 종사자 보수월액에 포함하여야 함.

'99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봉급표

단위:천원

근무 연수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1	653	576	517	478	362
2	672	594	533	492	377
3	692	612	550	506	393
4	711	631	567	520	407
5	731	649	584	533	423
6	752	668	602	549	439
7	772	688	620	564	456
8	793	707	637	580	473
9	814	727	655	594	489
10	835	746	674	610	506
11	857	767	693	627	524
12	879	788	713	644	542
13	901	809	732	659	560
14	923	828	751	646	578
15	945	849	771	693	596
16	967	870	790	710	614
17	990	891	810	727	632
18	1,012	912	828	743	650
19	1,034	932	848	759	668
20	1,056	953	867	776	686
21	1,077	973	886	792	702
22	1,097	992	904	806	719
23	1,118	1,012	922	822	736
24	1,139	1,031	940	837	753
25	1,160	1,051	958	853	770
26	1,179	1,069	974	866	784
27	1,199	1,087	991	880	800
28	1,218	1,105	1,008	894	815
29	1,238	1,122	1,025	908	831
30	1,257	1,140	1,041	922	845

* 직표사(동리직표, 전임직표, 전리직표, 연리직표), 간표사, 별표사(간표사, 별표사)는 간표사 봉급액을 적용. 다만, 간표조수사는 보육교사 봉급액 적용

'99 사회복지시설 직원 월보수

직책별·근무연수별 국고보조 기준

단위:천원

근무 연수	시설장	종무	생활 지도원	보조원	생활 지도원	체육 교사	관리인	근로 기사	의사
1	1,068	950	939	886	750	1,373	829	1,347	1,287
2	1,104	982	968	912	777	1,400	855	1,374	
3	1,140	1,016	999	937	804	1,429	881	1,402	
4	1,176	1,050	1,030	963	830	1,458	906	1,432	
5	1,253	1,124	1,102	1,029	898	1,527	971	1,500	
6	1,291	1,160	1,135	1,057	927	1,559	1,002	1,532	
7	1,331	1,197	1,169	1,087	958	1,591	1,030	1,565	
8	1,370	1,233	1,201	1,114	989	1,622	1,060	1,596	
9	1,411	1,271	1,235	1,144	1,018	1,655	1,087	1,628	
10	1,462	1,318	1,282	1,183	1,060	1,697	1,129	1,670	
11	1,505	1,359	1,319	1,216	1,093	1,733	1,162	1,705	
12	1,541	1,392	1,351	1,242	1,122	1,759	1,188	1,733	
13	1,576	1,427	1,382	1,269	1,152	1,787	1,213	1,759	
14	1,612	1,458	1,412	1,296	1,181	1,812	1,241	1,787	
15	1,658	1,502	1,455	1,334	1,220	1,850	1,279	1,822	
16	1,693	1,536	1,486	1,359	1,249	1,878	1,305	1,850	
17	1,731	1,570	1,518	1,386	1,279	1,904	1,333	1,878	
18	1,767	1,604	1,548	1,414	1,308	1,932	1,360	1,904	
19	1,802	1,636	1,580	1,442	1,337	1,959	1,386	1,932	
20	1,858	1,691	1,631	1,489	1,386	2,006	1,433	1,979	
21	1,893	1,723	1,662	1,512	1,413	2,030	1,459	2,004	
22	1,925	1,754	1,691	1,538	1,441	2,055	1,481	2,027	
23	1,958	1,787	1,821	1,562	1,468	2,080	1,508	2,052	
24	1,993	1,818	1,750	1,588	1,496	2,105	1,533	2,079	
25	2,027	1,850	1,779	1,611	1,523	2,219	1,558	2,103	
26	2,058	1,879	1,804	1,636	1,546	2,151	1,579	2,123	
27	2,091	1,908	1,832	1,658	1,572	2,174	1,602	2,148	
28	2,121	1,937	1,860	1,679	1,597	2,197	1,625	2,171	
29	2,153	1,965	1,888	1,702	1,623	2,220	1,647	2,192	
30	2,185	1,965	1,914	1,725	1,645	2,242	1,671	2,215	

주 1) 부임인사선 상임직원 포함

2) 간표사, 별표사, 각종 교사(보육교사 포함), 실리직표사, 별동지표사,

보육전문사 포함

3) 보육사 포함

4) 별동지 포함

서울특별시보육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시민간 가정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의 숙원사업인 서울시보육조례가 5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대부분 시·도의 보육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보육조례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기에 타지방 보육조례제정 활동의 용기가 되길 희망하며 보육조례안과 경과과정을 실습니다.

서울특별시보육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시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위원회

제3조(설치)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서울특별시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보육시설 대표
 6. 시민단체 대표

7.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기능)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외부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10조(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설치기준)

- 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2조(기능)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4.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열람
5.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6.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둔다.
-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보육지도원은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비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한다.

제4장 방과후 보육

제15조(보육시설의 설치)시는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을 공단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보육시설 기준)방과 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용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22조에 의한다.

제17조(교육훈련)시장은 방과 후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비용

제18조(비용의 보조)

-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 22조 및 영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장애아 보육운영비
2. 생활보호대상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3. 보육교사재교육비
4.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야간·24시간, 휴일제 보육 운영비
6. 교재교구비
7. 보육아동 급식비
8.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의 반환 명령)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6장 보칙

제20조(교육)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의 평가)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보육조례 제정까지의 경과

- ◆ 1995년 1월 17일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이하 서울시민보련)창립
- ◆ 1995년 5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육조례제정의 필요성 논의시작
- ◆ 1995년 6월 서울시 보육조례안 1차안 만들
- ◆ 1996년 서울시 보육조례 제정의 필요성 홍보시작
각종 제안서 및 건의서, 면담내용으로 채택
- ◆ 1997년 3월 서울시 보육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박찬수 서울시의회
문교보사위 원장 면담
- ◆ 1997년 4.5월 서울시민보련, 참여연대, 안산시, 교수등 참여연대 주관으로 각지방 자치단
체의 보육조례제정의 필요성 확인과 보육조례 가안 채택
- ◆ 1997년 7월 서울시민보련 정책부에서 서울시 보육조례(안)2차 준비회원들과 검토
- ◆ 1997년 8월 회원들과 검토
서울시청에 제안서 제출
- ◆ 1998년 1.2월 서울시민보련 정책부에서 그간의 보육조례제정 작업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서울시 보육조례안 3차로 만들(서울시민보련 이사교육시 보고)
- ◆ 1998년 8월 서울시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흡습제 서울시의회 의원면담
안산시의 울산시의 보육조례 제정과정 설명
- ◆ 1998년 10월 본격적인 서울시 보육조례제정 준비
- ◆ 1998년 12월초 서울시 보육조례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의 발제자, 토론자들과 최종적으로
조례안 검토
- ◆ 1998년 12월 19일 서울시 보육조례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주관 : 서울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
- ◆ 1999년 3월 토론회 이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서울시 보육조례 최종마무리
- ◆ 1999년 4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보육조례 통과
- ◆ 1999년 5월 10일 서울시 보육조례 공포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 -새로운 보육의 지평을 넓히다.

편집부취임

지난 4월 29일~5월1일에 걸쳐 진행된 특수보육프로그램이 본회 회원과 참석자들의 성원과 기대속에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아래의 글들은 독일감사의 분야별 감의내용(동시통역을 녹음하여 녹취한 것임), 분야별 참석자의 소감과 의견, 이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한 최순옥사무국장의 전반적인 설명과 윤선영선생님의 특별제안까지 숨가쁘게 이어가고자 하니 많은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4월 29일~5월 1일만에 걸쳐 실시하였던「특수보육의 완성화를 위한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의 여러 강의 중에서 영아보육, 방과후 보육, 장애통합보육 각 부분의 강의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3일 동안 열강을 해 주신 독일 감사분들과 통역을 맡아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한번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과후 아동기의 심리학적·교육학적 측면 : 교사와 아동의 기질

Sassmannshausen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연합 이사)

통역 : 박영옥



우리 이제 학령기 발달과정과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처음 이야기할 부분은 유치원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2가지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주위 어른을 통해서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배우고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성에 대해 얘기해 보지요.

한 예를 들겠는데 유치원을 방문 했을때 6살 아이가(학년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원장과 교사와 인사를 나누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가 "나는 눈을 꼭 감고도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면적인 상황을 잘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것을 심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상상할 수 있는 것과 느끼는 것 곧 감각이 잘 분리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상상이라는 것이 느끼고 만지고 하는 오감을 통해서 좌우되는데 이 시기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내면에서 상상한 것을 끄집어 냅니다. 그것을 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교육자와 아이 사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봅시다.

아이는 선생님을 통해서 세상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 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아이는 버스안에서 두 아이를 관찰합니다. 선거가 있기 직전의 시기였습니다. 아이들이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나은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보에 대해서 아빠, 엄마가 이야기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을 알아가는데 주위의 어른들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상이 있고 여기에 아이가 있고 어른(선생님, 부모)이 있습니다. 어른을 통해서 이세상은 아이들에게 보여집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인간적인 관계, 개인적으로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내면적인 질문은 어른에게 "당신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 주세요"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른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개별적으로, 인간적으로라는 말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데 다른말로 바꾸면 그 어른에게 '당신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주세요, 선물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살 아이가 어른(엄마, 아빠, 선생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달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떤 때는 초승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크기도 한데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질문을 받은 어른이 대답합니다.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햇빛이 비치는데 거기서 지구가 지나가면서 어떤 때는 가려주고 어떤 때는 안 가려주고 하니까 초승달이 되었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하는 거다'라고 학문적인 답을 해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속으로 그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유감스럽네, 저 사람도 역시 내가 질문하는 것을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 앞의 대답은 너무 추상적인 거죠. 아이는 어른을 통해서 어른이 느낀 그림을 전달받고자 했는데 학문적으로 전달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 경우에 어른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면, "아, 사람스런 내 아들이! 태양은 너무 뜨겁고 밝거든, 어제 덥고 따뜻하고 밝았지 않니? 그건 태양이 대부분의 열과 빛을 선물한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거야. 그래서 꽃도 자라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밖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다시 즐거워지고, 기뻐하지. 그리고 그 태양은 달에게도 빛을 선물하는 거야. 언젠까지 선물하냐면, 달이 더이상 받을 수 없을 때까지 태양이 선물하는 거야. 그런데 달은 그 상황

에서 어떻게 하지? 그 많은 빛을 선물받은 달은 그 빛을 다시 선물하는거야.' 이러한 설명은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의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매번 빛을 선물 받아서 점점 커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때 점점 다시 줄어서 적어진다는 아까 그 얘기는-자연학에서 볼 때 100%맞는 얘기입니다.-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추상적인 얘기와는 달리 추상적이지 않은 차원에서 얘기 된거죠.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른을 통해서 그 느낌을 (인간적인 느낌을)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을 통해서 인간적인 느낌을 요구하는 것은 비단 이 분야 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똑 같습니다.

산수에서 접근해 봅시다. 추상적으로 2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앞에 있는 컵이 한 개하고 또 한 개니까 컵이 두개고 2다라고 하면 형식적이고 추상적이죠. 거기에는 내면적인 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대답이죠. 내적으로 질이 담긴 것이 되는 대답은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야기 합니다. '처음에는 오직 하나였다. 모든 것이 포함된 하나였다. 모든 것이 들어있는 하나. 낮과 밤도 하나였고, 왼쪽 오른쪽도 합쳐져서 하나였고, 남자여자도 하나였고, 모든 것이 하나였다. 모든 것이 하나인 것이 1이다. 그런데 하나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전개된다. 낮과 밤이 생기고, 땅과 물이 생겼다. 여자, 남자가 생겼고, 그 외에 모든 것을 생각해-분리된 것-볼 수 있다. 하나에서 두 개가 생겼다. 그래서 2가 생겼다. 그리고 이 2는 극을 나타낸다. 두가지라는 말은 2라는 단어속에서 느낄 수 있듯 zweifeln은 회의적인 것을 얘기한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zweifeln이고 이것도 역시 두가지 이고 zwietracht도 zweifeln에서 변형된것인데 '싸움'으로 양쪽에서 어원이 연결된 것이다."

다른 숫자들도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4계절을 살펴보면 hier 네동강인데 우리가 현상들을 살펴보면 환타지가 생기죠. 어떻게 이런 것이 생길까하는 환타지가 생기죠. 어른은 환타지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그림화시키기 위해서 환타지가 필요합니다. 아이는 어른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인간적인 그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필요한 그림은 어른들이 만들어냅니다.

이시기의 12살 정도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어른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환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동화를 통해서 7-8살 경우에는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자스만 하우스) 1.2학년은 말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매일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등 여러 전래동화를 매일 들려 주었는데 아이들은 그 순간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방과후 지도를 하는곳에 제가 일을 한다면 저는 동화를 들려주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환경조성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그렇게 앉아서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전 기불 대신에 촛불을 켜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밝은 한여름에는 얘기하는 동안에 커튼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동화를 돌아가면서 들려주겠습니다.

질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다른 요소를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특별한 면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은 과다행동적 힘을 가진 아이고 자기를 제어하기 힘든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벌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들어

서 의자에 앉히면서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을 때 가끔씩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교육적인 행위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선 이 경우는 어떤 그림이 이 아이에게 맞는 그림일까 상상해봅니다. 행동을 하고 제어할 줄 모르는 이 아이를 관찰하면서 세상에서 자연 속에서 이와 비슷한 그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관찰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급방 태어난 새끼 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양이 목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노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한 양은 밀으려고 떨어지기도 하고 다행스럽게도 얼마 양이 다시 꼬집어 울립니다. 그래서 새끼 양들이 천천히 조금 더 조용해지고 그래야 되는 것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것이 보여집니다. 아이에게 느낀 그것을 세상의 현상들에게서 발견해냅니다. 그것으로부터 재미있는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다음날 아침에 양들을 관찰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얘기는 재미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 낸 얘기는 여러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그림과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은 너를 위한 것이고 네 얘기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객관적으로 얘기해줍니다.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그 그림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림으로 인해 자기를 교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자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느낄 수 있는 기분을 공간 속에 던지고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느껴서 고칠 것은 고쳐나갑니다. 그 아이도 스스로 느껴서 교정해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학교에서는 감정이 연결되는 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공부만 잘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방과후 지도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성을 더 띄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얘기를 만들어서 들려주고 아이가 느껴서 스스로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방과후지도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공부 잘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내적인 개념에 중점을 두시고 아이들과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영역을 살펴봅시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6~8살의 아이들은 특별히 배우려 하고 일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치원에서 나이 많은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의 과제-일 등을 기꺼이 할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성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아침밥을 먹기위해서 식탁보를 덮고 수저 놓고 접시놓는 것을 아이들이 합니다. 창가의 식물에 물을 준다든지 잎이 시들면 버린다든지 등도 마찬가지죠. 그릇을 씻는 것도 속하지요. 이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느낍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른 능력이 생기는데요. 바람따라 가는 용을 만든다든지 아이들이 물레방아 설계해가지고 물레방아도 만들 수 있습

니다. 밭에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해야된다, 꼭 해야된다’ 등의 어른들의 강요가 들어가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고자 계획했을 때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계획했다가 아이들이 싫어 한다고 그만 두어서는 안되고 하자했을 때 차근차근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흐지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6~10살까지의 아이들은 의지를 갖고 만드는 즐거움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환타지만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자유도 필요하죠.

또 한국에서는 학교 숙제를 하게 하죠. 유럽에서는 학교에서 숙제를 다하고 방과후에서 숙제를 하지 않는 곳도 있고 바로 와서 숙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일과가 숙제, 자유롭게 놀고, 계획해서 놀고 등 일과들로 구성됩니다. 이런 리듬은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계획해서 만들고 자유롭게 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이 되잖아요. 하나의 리듬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방과후에서 중요한 역할과 과제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실순으로 할 수 있는 능력에 치중하죠.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고 그에 따른 계단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1,2,3순, 이것은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건데요 그런 그림을 받게되죠. 그게 바로 능력위주의 원칙이죠) 그러한 것들은 우리 어른한테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힘든 정도가 훨씬 더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내가 가진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훨씬 더 힘들어지죠. 방과후에서는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거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속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정말 없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일차적으로 상관이 없고 방과후에 올 때 ‘너는 우리 방과후에 속한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는 여기에 오는 아이들 모두가 중요하고 너희들이 있어서 기쁘다. 우리는 어떤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마다 숙제는 다르죠.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다르지만, 뭘 만들 때 애는 잘 만들고 애는 좀 서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할 과제는 서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체 속에서 어떤 아이가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하는 것도 전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질문) 교사가 일지를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사로서 일기쓰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나서 길게 쓰지 않고 짧게 쓰는 일기를 썼으면 합니다.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자기가 관찰한 것을 묘사하는 차원에서 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점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은 첫째 아이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매일 3분 정도를 쓴다면 다음 날, 그 다음 날 등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고 더욱 의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두 번째는 교사 자신에게 의문점이 생긴다든지 부

모습이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다른 선생님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그림들에 대해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요. 3개월동안 한 아이에 대해서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내가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모를 정도로 나한테 전혀 의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눈에 띄지 않는 아이들도 특별한데 그런 아이들은 과다행동을 하는 등 아이들에 비해 눈에 안 띄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 생각해서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미롭죠 그런일이.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민식이라 합시다. 교사는 '민식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네. 더 열심히 살펴봐야겠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민식이에 대해서 주의깊게 관찰합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뭐를 알게 되었고, 뭐를 느꼈고 뭐를 관찰했지 만- 같이 저녁을 먹을 때에 함께 앉아 있었던 기억, 그리고 아이가 여기저기에서 노는 모습을 본 기억- 내가 모르는 것은 그 아이가 즐거워했는지 혹은 겁을 집어먹고 있었는지 그런 내면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알죠. 개가 즐거워하는 것도 알고, 슬펐는지도 알고, 화났는지도 하는데, 민식이는 내 의식속에서 자꾸만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민식이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나는 스스로 민식이를 의식할 수 있는 행동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기를 빠져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사춘기(발달하는 과정을)까지 관찰하면 점점 아이들이 빠져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국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 아이들은 점점 날씬해 지려고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병을 심리학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아이는 살고 싶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것으로 심리학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잠전에 얘기한 그 병이 그와 비슷한 그러한 성향을 띤 종류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은 바로 유치원에서 방과후까지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아이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 봐야합니다. 거기에는 맞는 처방이 따로 있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한가지는 확실한데요. 교육자로서 나는 그것을 내 의식속에 그 상황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기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정도 쓴 것을 간단간단하게 쓴 그것을 훑어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3개월정도 썼지만 그 아이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막힌 일이죠.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아이가 일기장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 중에 특별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위험하다든가, 그렇지 않다든가, 그 중에 한 아이는 심각한 경우일 수도 있는거죠. 일기에 관해서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질문. 과잉행동을 하는 아이의 교육사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힘들고요. 구체적인 예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한사람 한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같은 것이 있죠. 밥을 같이 먹는데 김치를 상대방 앞에 얹은 아이에게 던졌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데 제재하는 것이 당연하고 제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겠지만 다른 방에 혼자 있게 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별로 잘못했습니다 100번 쓰게 하는 것은 그 일 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요. 조금더 살펴보면요. 평화스러운 분위기에서 먹는 것을 못 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한번도 해보지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먹는 것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에게는 색다른 방법이 요구되지요. 도와주는 방법. 예를 들자면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분위기에서 동화를 들려주는 그런 경우에 그 아이를 제 가까이 데리고 와서 제 손이 닿는 곳에 앉혀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경우 아이에게 버림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림들(얘기들)만들어서 들려줍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를 정확하게 발견해내야 합니다. 왜 그러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러고 나서 해답을 찾습니다. 해답을 찾는 과정 속에 처음에도 못 찾고 그 다음주에도 역시 해답을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아이를 돕기위해서 동기를 찾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부모님과 방과후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학교에서 해야될 것과 방과후에서 해야될 것, 가정이 해야될 것이 각각 다릅니다. 아이에게는 학교도 방과후도 가정도 중요하죠. 아이가 여러 할머니와 관계를 가진 것처럼 학교, 방과후, 가정, 이웃과도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중요하죠. 방과후의 제일 큰 과제는 배우는 목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전문적인 시각을 가져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은 필요없죠. 얘기가 한 아이로 넘어가는데, 한 아이가 특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경우에 부모님과 선생님을 한자리로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눕니다. 근본적으로 해야할 것을 얘기하자면, 일년에 한두번 축제를 만듭니다. 부모님도 초대하고 선생님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규칙적으로 하면 고정화되죠. 아이에게 서로서로 잘 지내는것이 중요하기에 도와주는 거죠. 축제를 여는 것이, 그리고 나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과제가 있을 수 있죠. 독일에서 발도르프학교에서나 유치원 혹은 다른 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발도르프선생님들이 자기들은 위에 있고, 유치원선생님들은 낮은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유치원이나 방과후에 와가지고 이것도 해야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과후는 학교가 아니고 방과후입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아니죠. 아버지도 엄마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만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내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죠. 다른 여러 주위사람들 부모님과 선생님 그런 분들과 계속 키워나가고 보살펴나갑니다.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죠. 방과후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학교선생님과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대항하기 위한 과제를 잘 수행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부분입니다.

영아와 어른(교사)과의 실제적 관계형성1

Braune (발도르프 학교 부설 방과후반 교사)

통역 : 윤선영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두손으로 아기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두손이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것을 먹이고 그리고 씻기고 돌보게 되는거죠. 바로 이 두손에 의해서 엄마와 아기와의 첫 번째 만남이 시작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이 두손은 새로 태어나는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의미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갓난 아기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두손이 아주 부드럽고 인내심이 있고 조심스러운 - 예를들어 연인들끼리 사랑할때 처럼- 부드러움이죠. 어떻게 두손으로 아기를 다루느냐가 바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경험하는 처음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어떻게 이 세상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기는 이 세상을 촉감에 의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촉감은 온 신체 전 부분에 걸쳐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털이 있죠. 그 솜털 같은 털 모근 부근에는 촉감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기는 자기자신의 주변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촉감을 통해서 아기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느끼게 되고 그것 말고도 자기자신의 피부에 의해서 외부세계와의 경계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이세상도 느끼고 자기자신도 느끼는 것입니다.

아기는 이 세상을 체험해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체는 발달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스스로가 발달하고자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생존적으로 누군가의 돌봄에 완전히 매여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그 아기는 죽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는 인간과는 좀 다르죠. 병아리가 태어나면 자기 스스로 먹이를 금방 찾아먹습니다. 그런데 동물중에서도 발달된 동물일수록 누군가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교육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 나가느냐 하는가에 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아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촉감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감각이

있는데 그것을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생활의 감각', '삶의 감각'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굉장히 피부가 나약하기 때문에 잘 돌보아 주어서 엉덩이가 빨개진다는가 아니면 쉽게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잘 돌보아 주게 됩니다. 즉 아기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돌보아 주게되면 우리는 그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기를 잘 돌보아주지 않아서 예를 들어 옷을 너무 작게 입힌다든지 천의 촉감이 안 좋은 걸 입힌다든지, 엉덩이를 깨끗하게 안 닦아줘서 빨개진다든지 엉덩이가 곪는 다든지 종기가 난다든지 그렇게 된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상당히 불행한 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기들은 특히 소리를 더 많이 질러가며 울니다. 그것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른인 우리도 너무 피곤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어떤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되면 대부분 아기와 마찬가지로 건강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른으로서 잠도 꼭자고 아침에 샤워를 하고 아침도 든든하게 잘 먹고 그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자신의 피부가 아주 건강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의 여러분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냐하면 바로 새로 태어난 그 갓난아기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촉감과 삶의 감각- 생활감각 이 두가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의 두 가지 감각을 돌보아 주는 것이 오랜시간 동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을 즉 영아기의 아이들을 돌본다고 생각하면은 별 것도 아니다. 기저귀나 갈아주고 씻겨주고 배고프다고 그러면 먹여주고 그러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금방 아기를 처음 출산한 젊은 엄마들은 '아 내가 아기를 낳았으니 아기가 먹을 죽을 끓이면 되는거고 아기 기저귀가 젖었으면 갈아주고 하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에 참여해서 듣게 됐다는 것이 기쁘는데 더더욱 기쁜 것은 네명의 남자분이 앉아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몇가지 어제 슬라이드로 보여드린 것 중에서 에이피플러가 연구한 디아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 여자는 고아들을 돌보는 보육자들을 자기가 직접 교육시켰습니다. 그 시설은 아주 환경적으로 열악했고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사는 기가막히게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당시 사회가 전환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대가족에서 여러 식구들이 여러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더 돌이켜보면 특히 중세기 이전을 생각해보면 그때만해도 어떤 집단적인 사회생활 내에서만 인간의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집단에서 이탈되면 인간이 생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가족이든 부족이든 아니면 어떤 집단 내에서만 인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사는 6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집단생활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기본적인 가족의 틀만을 남겨놓고 해체가 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핵가족화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

에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만 나는 또 집단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두가지를 구별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보육자들을 교육 시켰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 보육자가 한 아기를 돌보고 있다면 그 보육자는 절대로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쓰지 않고 완전히 그 아이에게 몰입되도록 했습니다. 그 의사는 보육자에게 어떻게 교육시켰나하면 목욕을 시킬 때는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시키게 했습니다. 예를들면 꼭 왼쪽 손부터 시작해서 왼쪽 팔로 와서 오른쪽 팔로 가서 오른쪽 손, 그 다음에 왼쪽발부터 왼쪽 다리 오른쪽 발부터 오른쪽 다리 등 순서를 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자가 어린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할 때에는 항상 말로 먼저 대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그 보육자가 아기를 안으려고 할 때에는 두 손으로 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아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를 안을거야", 그러면서 안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육자들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보육자가 손을 안는 시늉을 했을 때에는 아기가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안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긴장을 풀더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뭔가 짜증이 났을 때도 손을 그렇게 하면 긴장을 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욕을 시킬 때도 아까 그 규칙대로 꼭 말을하죠. "자, 지금부터 내가 왼손을 씻길거야. 그러니까 왼손 좀 찰래?" 그러고선 씻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 스스로 풀더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면서 동시에 팔에서 힘을 빼더라는 겁니다. 긴장감을 푼다는 거지요.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거죠. 4.5개월정도 되니까 손을 주다가 다시 빼더니 못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주더라는 겁니다. 내 기억으로는 아이들을 키운지가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지만 나도 그런 경험을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했던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4.5개월정도 되면서 놀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손을 주다가 뺏는 척 하다 다시 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놀이를 시작한다는 것을 나 자신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주 쉽게 어른들의 움직임에 아이들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아이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아이와 긴밀한 느낌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이 세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내가 진정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첫번째, 두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나는 그냥 흔들어주고 안아주고 두드려 주고, 트림시키면서 막 두드려주는 등 기계적으로 아이를 돌봤는데 진정으로 느낀 것은 세번째 아이를 키우면서였습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양육은 아이에게 먹이를 떠 먹여줄 필요가 있을 때까지 아무튼 아주 오랜시간 동안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 스스로에게 맡겨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아기침대에 아기를 눕힙니다. 유럽식으로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면,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조그만한 침대에 눕히게 되고 조금 더 크게 되면 난간이 있는 침대에 아기를 눕히게 됩니다. 아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침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외부의 세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의 보육자들이 꼭 지켜

야 할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아기들이 스스로 움직일 때에는 절대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발견했던 것은 모든 아기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움직임의 단계를 발달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그 아이 손을 잡고서 아이가 손가락을 꼭 잡고 얼마나 오랫동안 매달릴 수 있나, 얼마나 힘이 있나 하는 실험을 절대로 해보지 않았답니다. 또 아이가 열치기를 혼자서 터득해갈 무렵 팔이 끼어서 쥘쥘대고 있을 때 어른이 즉각적으로 가서 빼주는 일은 절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위험한 상황, 어디에 끼어서 나오지 못한다거나 할 때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은 모든 아기에게서 움직이는 동작의 발달단계 또는 그 과정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이감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놀이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감이 라고 만들어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형조 조각 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들이 자기자신의 몸 자체를 놀이감으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기 노는 움직임을 관찰해 보시면 아마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기들은 어떤 특별한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기 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움직이면서도 자기 손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 이게 내 손이네' 하고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봅니다. '어? 이쪽에도 손이 있네' 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발달하게 되면 두 손을 마주잡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로 아기는 자기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두 손으로 어마어마하게 재밌게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기가 손을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아기 손만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팔에 있는 근육, 겨드랑이 근육까지 신체적인 일부가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손을 움직이다보면 그 다음에는 어깨 근육까지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양쪽 다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느 날 갑자기 엮는 것을 배우는 순간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아이가 고개까지 들고 머리를 가누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바로 손의 양쪽 근육을 많이 움직임으로 해서 머리를 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발이 장난감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발이 자기한테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발 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막 움직이고 옆으로 왔다갔다하다 보면 결국은 엎어져 있다거나 누워져 있다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기가 자기 혼자 스스로 아주 조용히 움직이면서 놀고 있을 때 아기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데 왜냐하면 아기가 누워서 자기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렇게 저렇게 실험해보고 움직여 보고 하면서-우리 어른들이 누워서 볼 때하고 엎어져서 볼 때하고 틀린 것처럼-그렇게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물론 아기들에게 놀이감이 몇 가지 주어지기도 해야 겠지요. 오늘날 놀이감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놀이감을 가져왔는데 어떤 것들이 아기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이고 어떤 것들이 아기들에게 전혀 상관없는 그런 놀이감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놀이감을 아기에게 주려고 해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희한한 장난감을 선물하게 되면 무조건 뱃을 수도 없는 어려움도 있겠지요. 이것은 하나의 공인데요. 이 구멍으로 아기들의 작은 손가락들이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독일어에서는 이 공에 관해서 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구멍을 통해서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이해했다'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품이 나와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자주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그리고 또 독일어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만졌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또 나는 뭔가를 '이해했다'라는 말과 유사하게 쓰입니다. 바로 이 공을 통해서, 나는 이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만져볼 수 있는 거지요. 아주 아름다운 공이고 또한 작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놀이감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틀립니까? 그런데 이 공을 통해서만 아기가 구멍을 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흔들니까 소리가 났죠? 그런데 그것을 아기가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만 그것을 만질 수가 없는 놀이감입니다. 이 공은 왜 흔들어야만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왜 그 공을 가지고 놀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냥 흔들어야만 소리가 나는 놀이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주 영아기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할머니들이 주로 뜨개질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집에 이런 것들이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아가에게는 놀이감이죠? 이 물건을 가지고 아기는 구멍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만져볼 수 있습니다. 이 무게도 똑같이 나무로 만든 건데 저 것도 나무로 구멍을 파고 만든 것이고 왼쪽 것은 이것의 원초적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아기가 이 손에 꼭 쥐고 잘 볼 수 있는 놀이감입니다.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만약에 안 본다고 해서 눈을 감으면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대신 많이 듣게 되고 또 듣다보면 호기심이 생겨서 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린이들을 관찰하다 보면은 눈을 크게 뜨고 뭔가를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엄청나게 큰 것처럼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일행은 경주여행을 하면서 부처상을 봤는데 그 부처가 귀가 크게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원래는 아이들 귀가 크지 않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눈이 커지고 귀가 커진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보고 듣고 있다 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재울 때 조용하면서 안정된 환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재웁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기는 자연서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어린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나는 놀이감이 많이 생겨났어요. 짹짹이 신발도 똑같은 건데 이것은 팔에다가 팔찌처럼 끼워주고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들려주는 놀이감이예요. 근데 이런 움직일 때마다 소리나는 놀이감은 애들을 신경질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기가 놀다가 잠이 들 때에도 이 소리 때문에 계속 아기가 어떤 움직임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 놀라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아기들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로 돌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두어야 할 법칙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여의

사의 보육시설에서 관찰된 어린이들에 의하면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비슷한 동작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똑같은 동작을 배우더라도 모두 시기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6개월만에 기는 아이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12개월만에 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12개월만에 걷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는 18개월만에 걷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아이가 자기 자신의 시간-자기가 걸기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았다는 겁니다. 어떤 아기는 6개월만에 기었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아이에게 맞는 시기는 그 시기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덧붙여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 스스로 움직임을 배워가고 동작을 배워가고 하는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좋은 신체적인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체적인 장애, 어깨가 비뚤어졌다든지,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저해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장 다리, 아니면 발도 광발이 있고 아니면 발이 꼬부라진 발이 있고 이렇게 죽 퍼진 발이 있는 등 이런 여러가지의 기형적인 모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 어린이들이 아주 늦게-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린이 발달단계와 비교해 볼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나하면 어린이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마다 상당히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그렇지만 아주 뚜렷하게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아주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은 어디선가 자기 나름대로의 놀이감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발견한 것은 그 어린이들이 심심해하거나 지루해 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아이가 주변을 관찰하면서 '나는 나 혼자이고 내 자신과 몰입해서 내 움직임을 여러 가지 실천을 하면서 움직임과 동시에 또 다른 아이들이 주변에서 나와 비슷하게 또 그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나는 관련성이 있는 그런 또 한사람'으로써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각 개별적인 아이가 그렇게 동작을 자유롭게 하면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관계, 즉 어린이들의 관계가 상당히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어떻게 사는가를 관찰해 봤더니 그 어린이들은 보통 다른 고아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가정적인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제공하려고 하죠. 무슨 교육, 무슨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빈틈없이 뭔가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혼자만의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집에서 키우다 보면 언제 설거지 하고 언제 밥하는게 좋을지를 아기상태를 봐가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영아를 돌보는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교사가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관찰을 함으로 해서 언제 아이들의 물건을 정리하고 언제 아이들에게 가서 아이들과 콘택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그 두 가지의 리듬을 어떻게 맞출까를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교사가 어떠한 용기를 가져야 하나하면 어린이들을 일단 혼자 내버려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는 어린이들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가를 한번 관찰해 볼 수 있는, 또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내버려두었을 때 뭐를 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 조그마한 어린애들에게도 아주 굉장히 많은 환타지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조금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어린이들은 원래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 세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걷다는 의미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기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아기를 우리 어른과 비교하면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 바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예를 들어 저 장(물건 넣는 장)을 보면 아무런 환타지없이 그냥 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세상을 발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저 장을 보게 되면 '저걸 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런저런 실험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슬라이드를 볼 때 어떤 여자아이가 계단을 처음 내려오는 과정을 꼭 보셨죠. 그리고 한 남자아이는 그 수레를 끌고 처음 내려오고 또 한 아이는 형질을 어디에다 걸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발견의 여행, 모험의 여행'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어린이가 무엇인가 발견하고자 발견의 여행을 떠나서 막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잘 관찰하면서 한번 동행을 해보세요. 동행을 하면서 어린이의 발견의 여행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아이가 발견하고 나면 '아! 바로 그거였구나' 하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이거 아닌가' 해서 그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치워주어서는 안되고 그것을 그 아이가 스스로 극복하게 놓아두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과정을 즉 모험의 여행을 동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그 아이가 모험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내면적으로 관찰을 하라는 얘기죠.

내 생각에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강좌는 우리 한계점, 그러니까 무언가 저마다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강좌에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과 많이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한계를 느끼고 이 자리에 오셨듯이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항상 도와서 한계를 느끼지 못하도록, 아무 문제없이 잘 자라도록 한다면 그 어린이의 삶이 얼마나 지루해 지겠습니까? 만약에 한 아이가 저 문(강의실 문)을 열고자 할 때 문을 열지 못하면 나가지 못하는데, 세 번 네 번 막 시도를 해야만 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어른이 도와줘서 쉽게 열어서 나갈 수 있다면 그 문은 별로 재미가 없겠죠. 만약에 매번 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서 그 문을 열게 됐다면 그 아이가 그 문에 가서 그 문 앞에 서있을 때마다 그 문은 어린이에게 아주

흥미로운 물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기는 아이가 문 앞에까지 기어갔는데 그 아이는 뭐를 봤냐하면 어른들이 항상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늘 봤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그 문이 뒤에 걸려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손가락을 사이에 끼고 문을 열어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기는 손가락을 집어넣고 문을 열어 보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왼쪽 손을 집어넣고 몸은 문 뒤에 와 있으면 손가락이 문 사이에 끼겠죠. 우리가 기대하건데 그 당시 그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죠.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어떤 자세로 그 문에다가 어떻게 손을 집어넣고 열어야 진짜로 열리는지를 여러 번 시도를 해서 그 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 실험을 하게 놓아둔다는 것은 그 아이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이는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손잡이를 내려야만 열리는 문이 있는데 이 아이는 아직 작아서 손이 거기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의자를 가져오든지 발판을 가져오든지 온갖 물건을 동원해서 손잡이에 손이 닿을 때까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 문을 여는 과정까지는 아이에게 굉장한 모험이고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을 여는 방법을 배우면 이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가 되어도 항상 문여는 것은 모험이 됩니다.



교사 자신과 아동을 위한 주의력 학습 I

Schroeder (오이휘트미 전문가)

통역 : 박정희



들어가며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질문을 주면 답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한 강의를 토대로 질문과 답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특수아를 위한 방법을 세밀하게 알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질문

1. 언어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가? 수용성 언어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의사는 뇌의 문제로 보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만 갖고 있다.
2.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다. 자폐아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것을 문제행동으로 보고 교정해야 하는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무엇을 계속 하고 다니는데 거의 항상 그렇다. 7살이고, 걷기는 하지만 언어는 안된다)
3. 왜 아이들이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가? 행동 수정 방법은?

답

아이들이 발로 차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비슷한 다른 경우도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그 행위를 아이들 상호간에 하는지 아니면 보육자에게 하는지 구별해서 봐야 한다.

아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사례를 소개 하겠다.

육체의 행위는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나는 신체가 있으므로 존재한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볼 수 있는 신체와 그 속에 있는 자아이다. 그 상관관계를 아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아이를 때린다고 가정하면 그 아이도 나를 때릴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 아이는 건강한 것이다.

그 아이의 육체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한 나에게 문제가 있다. 앞 강의에

서 언어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인공적인 언어(만들어서 하는 의미 없는 말)를 안하면 못견디는 아이가 있다. 그것을 못하면 공격적인 아이가 된다. 그 아이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 아이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를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육자의 언어가 아이의 행동을 자극한다. 보육자의 말이 기계적이고 날카로울 때 아이의 행동을 자극하게 되고 아이는 공격적으로 변한다. 보육자, 부모가 문제일 수 있다. 그럴 때 어떤 애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떤 애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또 귀를 막아 버리는 아이도 있다. 아이가 자기를 표현 못하면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거기선 어른에게 문제가 있다. 거기서 중요한건 나 자신을 아이를 위해 어떻게 바꾸는가 이다. 나의 행동,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좋은 방법중의 하나다.

앞 강의에서 S환자의 경우 많은 사람이 평범한 상황에서 S환자처럼 말한다. S 발음은 권력, 힘을 이용하게 된다. S발음은 아이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된다.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대항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의 기본적인 자세다. 아니면 들지 않으려고 귀를 막게 된다. 보육자는 결국은 스스로 자성을 하지 않으면 결과에 얽매어 과정을 못보게 된다.

평범한 한 인간의 발달상을 보면 한 아이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는 한 개인이다. 만약 한 아이가 한 쪽만 발달하여 아이가 너무 조용히 앉아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의 영향(세상의 영향)을 알게 된다.

조서(지명)에 세운 학교에 한 아이가 3학년에 입학하였다. 그 아이는 7살까지는 밝은 성격의 아이였다. 그러나 학교에 입학한 후 교사가 군인 같은 교육방향을 갖고 있는 교사였고, 순주정뱅이었다. 그 교사는 자기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였다. 2주 후 그 아이는 견딜 수 없었다. 그 아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나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아이는 공격적인 아이로 바뀌지는 않았다. 교사에게 다가가 저항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그러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적으로 침잠한 아이가 되었다. 그 아이는 교사에게 배울려고 하지 않았다. 3학년이 되었는데도 쓸 줄 몰랐다. 태어나서 7살까지는 장애아가 아니었으나 초등학교에 다니며 장애아가 되었다. 그 아이는 육체가 아닌 정신적인 저항(장애)을 하는 것이었다. 내가 그 아이 앞에 교육자로 서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모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며 커 간다. 우리는 원인을 발견해야 한다. 아이가 이전에 한 경험을 예견하고 감지하여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이 교육자에게 중요한 과정이다. 그 아이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그 아이는 교사에 대해 대안점을 찾아야 한다. 그 아이는 지금 온화한 인상을 주고 만족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배우려고 안한다. 그 아이는 건강한데 그 아이가 어른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다. 문제 해결의 초점이 그 아이의 이전 경험이다. 주의력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렇다고 관찰대상만으로 보라는 것은 아니다. 발도르프에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평범한 상황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잠자기 전 아이들의 행동을 회상하는 것이다. 평범한 상황 속에서 행동을 회상하다보면 기억 속에서 문제점이나 질문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주 연습하다 보면 그 아이가 어떤 형태의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게 되고 무엇을 먹었는지 표정은 어땠는지도 기억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이 상황 속에서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된다. 관심과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 다음날 일어나는 결과는 어떨까? 나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와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직면하게 된다.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주의력을 가지고 보게 되고 그 주의력으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처음엔 알 수 없었던 것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된다. 세상이 바로 나에게 열리게 된다. 내가 관심을 가지므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 아이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아이도 그것을 감지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 그 과정을 거친다. 발도르프 교육의 특징이기도 하다. 결국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억, 회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에 대한 질문이 대답으로 나올 것이다.

예로 학령기 이전의 유아원에 내가 오이취트미를 하기 위해 가게 되었다. 수업에 들어가기전 그 반 교사가 내게로 와 한 아이를 가리키며 문제아라고 주의를 주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에 대해 주의를 갖게 되었다. 내가 사전에 그 얘기를 들었으므로 거기에 주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주의력을 갖게 될까? 어떤 사람이라도 주의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 아이는 5-7살이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만약 아이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아이가 처한 상황이 관건이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 내가 그 아이와 관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옛날에 꽃이 있었다. 그 꽃은 아주 특별한 꽃이었다. 그 꽃은 자기가 잘난 꽃이라 생각하여 다른 꽃과 같이 땅에 있으려고 안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음지로 숨어버렸다. 봄이 와서 꽃들이 피었다. 모든 꽃이 만발해 있는데 그 숨어버린 꽃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꽃을 찾을 수 없었다. 음지에 새도 없었다. 태양도, 바람도, 아무 것도 없었다. 꽃은 고독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아주 조그만 새가 찾아 왔다. 그 꽃은 아주 특별했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다. 새가 "왜 이런 곳에 있니?"하고 묻자, 아무도 찾지 않는 꽃은 "나는 아주 특별하기 때문이야". "내가 잔디에 피었다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새가 "여기에 있으면 누가 널 발견하겠니?" 그 순간 꽃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아무도 보지 않으므로 슬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꽃은 새와, 태양과, 바람과, 흙이 있는 곳에서 피기로 결정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각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아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 꽃에 대한 상만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이는 그 꽃을 통해 자아상을 찾게 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 아이를 통해 도출된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발도르프 이념은 육체를 통해 보이는 아이의 모습은 그 자체가 아니라 신체를 통해 보여진 것은 영혼과 관련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

연주자를 생각하여 보면 연주자는 악기가 나쁘면 좋은 연주를 할 수 없다. 좋은 악기가 있어야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도 연주자와 같다. 우리가 연주를 들을 때 연주자가 아니

라 연주자가 갖고 있는 악기를 봐야 한다. 연주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연주하는지 봐야 한다. 우리는 연주자가 악기를 통해 무엇을 연주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된다. 우리는 연주자가 어떤 태도, 어떤 시선,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악기와 연주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물질적으로 보면 악기, 연주자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연주자, 악기 사이에 하나의 요인을 보게 되는데 어디에 연주자의 사람이 있는지 봐야한다. 발도르프에서는 우리의 신체가 영혼과 정신을 반영한다고 본다. 신체가 악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봐야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특히 특수교육을 할 때 신체와 그것을 조절하는 영혼을 봐야한다. 보통은 이 둘의 관계가 건강하지만 그렇다고 꼭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인지는 신체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 악기에 문제가 있다면 나로 보면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야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교육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가르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아이는 어른들로부터 배운 것이 내재되어 앞의 초등학교 3학년생처럼 정신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이를 둘러싼 주위 상황이 문제인 경우이다. 세 번째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이다. 이것은 영혼의 결함과 상관이 없다. 이 세 가지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다. 우리가 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아이의 문제가 주위 상황에서 내재된 것인지? 아이는 정상인데 주변 상황이 문제인지 봐야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변 상황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교사는 고칠 수 없다. 셋째는 신체적 결함이다. 이 세 가지 요인과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정당하다는 전제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을 인정하는 것은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하고 인격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응 할 수도 있다. 또 남을 무시하고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 존재다. 주변 상황에서 나의 개성은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통해서 언어도 알게 된다. 다른 환경에서 산 사람은 다른 언어를 갖고 있다. 그것이 사회적 환경이다. 사회적 환경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만약 왕과 공주, 거지를 생각해 보면 각각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있다. 아이도 마찬가지로 각각이 처한 환경이 있다. 신체적 조건은 모두가 합당하지 않다. 연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나는 노인역을 하기에는 너무 젊고 12살을 연기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

45세 된 장애인을 만나 치료를 한 적이 있다. 그는 결코 눈을 맞추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3일만에 개선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눈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시도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없어도 하나의 방법이 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스스로 자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3년 후 그는 1분 동안 나와 눈을 맞췄다. 이후에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 신체를 보며 그 사람의 본질을 본다면 나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 도구, 악기가 잘못되어 있어도 정신,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발도르프 이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28세 된 다운증후군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상대방에게 온화하고 친근감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쳐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했다. 행위 자체를 본질로 보지 말자. 슬픈 경우 내 표현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상태, 상황의 표현이다. 한 인간의 모습을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몇 년 후 그녀는 오이리트미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서게 되었다.(그녀는 구부정한 자세였다) 신체적 상황 속에서 정상인처럼 되었다.

우리는 문제가 교육자에게 있는지, 정신에 있는지, 신체에 있는지 정확히 봐야 한다. 이를 정확히 구분 못하면 해결의 첫발도 못내리게 된다. 신체에 문제가 있다면 일생동안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이다. 교육에 있어 그런 프로그램은 있으나 영향은 미비하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다. 영혼적으로 내재한 문제라면 그 아이와 나의 관계에서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이에게 슬픔 같은 것이 내재되어 있거나 아이가 무관심 속에서 자란 것이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어떻게 아이와 신뢰를 쌓아가는 첫 번째이다. 관심을 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모르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두 번째이다. 그 상황 속에서 아이는 어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잠을 자기 전 회상을 통하여 한다. 그 아이가 언제 행복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웃었는지, 밥 먹을 때 표정은 어땠는지 회상을 한다. 그 순간을 포착하여 인지한다면 교육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그럴 때 아이도 감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긴밀한 관계가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작업은 시작된 것이다. 나의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 비판적으로 시작하면 안된다. 자기 비판은 변화할 수 없다. 자기 비판 없이 자기를 아는 것이 이 교육에 있어 중요하다. 자기를 인식하게 되면 자기를 변화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되 자기 비판은 하지 말자. '행위를 스스로 자각한다면 스스로 변화를 줘야지 내가 왜 이렇까 하며 자기 비판적인 자세는 좋지 않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아이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다. 변화를 줘야 한다.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발전한다. 여러분이 나를 발달시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중요하다. 10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변하지 않았다고 칭찬처럼 얘기하면 나는 화가 난다. 나는 변화해야 하고 나는 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프로그램 운영교육을 다녀와서 1 -

(영아보육프로그램 참여)

김지연 ·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 교사

낮잠시간, 원장님의 부름에 웬지 모를 설렘으로 문을 노크한다. 한번 읽어보라고 건네주는 안내문 3장을 천천히 살펴보는 가운데 설렘이 기쁨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다. 특수보육종 영아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나의 휴가를 반납하며 가야 하지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신청하고 교실로 돌아와 우리 반 아이들의 잠든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띄운다.

영아들을 보육하며 항상 신체적인 힘겨움과 더불어 가장 부족함을 느낀 것은 아들에 대한 정보 부족이었는데 이번에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영아들을 위해 발전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겠구나.

첫째날(4월 29일), 오늘은 저녁 7시부터 시작인데 다행히 함께 참석하기로 한 원장님의 차편을 이용해서 방과후반의 박은하선생님과 송실대학교로 출발! 늦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시던 원장님의 얼굴에서 약간의 초조한 빛을 보며, 숨가쁘게 뛰어들어간 백마당 강당 안에서는 벌써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의 인간형』이란 주제로 전체 강연이 시작되고 있다. 작년에도 만나 뵈었던 폴프강 자스만자우젠 박사님을 다시 뵈게 되니 세월의 흐름과 동시에 발도르프교육관에 대한 그 열정이 윤선영선생님의 통역을 통해 더 강도 깊게 다가옴을 느끼게 된다.

『인간의 내면적 삶이 교육을 만든다』 이 모든 교육학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면서 무의식적으로 지나치기 쉬운 인간의 여러 관계에서 자신의 내면적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진정으로 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내가 너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할 것 인가' 내면적으로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인간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내 자신이 타인과 함께 인간적인 관계를 할 때 나는 흥미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강연을 끝내면서 뜻밖에 숙제를 내주신다. 숙제라, 음, 이번 행사기간중 자기의 어린이들을 떠올리고 그 어린이들의 하나하나가 나에게 과제를 남기지 않나 생각해보라고? 4명의 영아를 떠올려 보고 그들이 나에게 주는 과제를 떠올리고 과제를 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기 -- 이 순간 나의 7명의 아이들이 다 생각나 너무나 감사함을 느낀다.

내면적 인간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유스럽고 개별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할 필요도 없고 단지 어린이와의 관계에서 인간화되는 것만을 생각하면 살아야 한다고 한다.

다음순서로 준비된 '영아보육시설의 실제에 대한 슬라이드상영'은 늦은 시간으로 인해 도중에 일어나야겠다. 여름인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모기는 살기 위해 톱부림치고.

불제날, 출근을 어린이집대신 대학건물로 들어서니 어색함 가운데서도 지식에의 충족을 느끼는 벅찬 감정이 느껴지네.

『언어, 동작의 의미와 관계』란 강연을 하기 위해 젊은 독일강사가 강단에 올라 선다. 어제의 숙제와 연관지어서 인간을 볼 때 오감을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고 즉 이론을 겸비되면 최상의 교육목표에 도달한다고 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진지한 표정

과 행동표현, 특히 보디빌딩이란 예를 통해서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공기의 파장을 통해 그 충분한 뜻은 전달되고 있다.

쉬는 시간, 종이컵 대신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컵에 남아있는 커피를 행구고 녹차 한잔으로 다음 강의를 기다린다. 방과후반과 장애통합보육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궁금하지만 영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다시 1층에 남아있다.

‘현대 영아기의 발달과 의미’의 자스만자우젠 박사의 강연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영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특히 0-3세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청중에게 던진 질문이 “제일 처음 기억되는 것이 무엇인지”이다. 곰곰이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왠지 심리학테스트를 하는 건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의 추억을 듣는다. 의례 처방전이나 해법이 나올 듯 하더니만 일반적으로 추억이 가능한 특별한 시기라고, 생리학적으로 분리시키라니, 아! 그냥 지나칠 내용이 아니구나.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 걸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의 질을 결정해주는 근본적인 중요한 시점이란단다. 그래서 이 시기의 교육 담당자인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편안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주는 모습에 자부심과 나의 존재이유를 느끼는 순간이다. 근데 왜 탁상에 계시는 높은 분들은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실까나.

인간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인간적인 관계가 필요한데 우리의 아이들은? 한명씩 떠오른다. 그래, 한번이라도 더 볼을 비비면서 접촉을 하고 그들의 언어를 더 알아들도록 노력해야겠구나. 보고싶네, 오늘 다른 반과 합반을 했을 텐데, 점심을 많이 먹었나 모르겠다.

점심을 먹고나니, 오후의 나른함이 엄습해오지만, 현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계신 권혜진선생님의 영아기의 힘든 과업은 경험해본 사람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무척이나 열려하면서 열심히 영아들을 위해 수고하라는 강의는 해이해지는 나의 몸매 자극이 된다.

저녁식사후 고민하다가 오이워트미강의를 듣기 위해 3층으로 올라간다. 강의실의 책상과 의자를 다 복도로 나르면서 참석교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보통 동료교사들과 함께 온 경우가 많아 얘기 나눌 시간이 없는데 이나마 접촉을 하니 같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도 친근하다. 모습들을 보니 힘도 세고, 뭐든지 잘할것 같다.

동글게 원을 형성하여 부드러운 몸짓으로 글자 특히 모음을 표현하는데, 엄숙함으로 일괄 진행된다. 옆사람의 형체를 느끼고자 하는 몸짓 하나하나에 처음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점점 진지한 표정에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된다. 약 2시간의 교육이라 외아함이 남는 순간이지만 어디 첫 손가락에 배부르다.

마지막날, 토요일이라 마냥 마음과 몸이 들뜨지만 더 큰 만족을 위해 강연장으로 들어간다. 어제 오이워트미를 청강한 교사들은 3층으로 가라고... 다시 복도에 있는 책상과 의자들을 원위치로 옮기고, 어디가나 힘쓰는 곳에서는 빠지지 않네. ‘오이워트미’ - 아름다운 동작이라고 한다. 몸은 지구이고 눈은 큰 대문이라고. 대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라고, ‘완전히 시야’ 그래서

눈을 뜨고 동작을 하는구나. 얼마나 멋진 말인가! 세상의 한가운데 내가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양·색등을 내가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니.

모양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백자등의 도자기를 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느낌을 표현하는 외국인의 모습에서 나를 돌이켜 보게 한다. 자칭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우리의 것을 시각적으로 많이 보았지만, 한번도 그 색채와 모양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리듬)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니, 물론 이들의 이론적 주장이 우리의 정서에 다 적합한 것을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알게 해주는 것에는 감사함을 느낀다.

작년부터 발도르프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지리상·문화여건상 우리의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교육관이라 여겨져서 유리전시관에서 관찰하듯 그저 바라만 보다가, 이러한 교육적 접근의 기회가 주어져서 영아반의 교사로서 많은 것이 뒤돌아보고 나를 대로의 자부심으로 이후의 교사상이 형성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 또한 더 많이 가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모인 열성교사들의 발산하는 눈빛을 보면서 보육현장의 수레 바퀴는 힘차게 굴러가고 있으며, 어떠한 방해물도 거뜬히 넘어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열정의 3일간의 교육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들이 있으니 우리의 아이들은 행복하다 말하지 않을까?

- 특수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을 다녀와서 2 - 또다른 희망에게!!

황호정 · 서울, 우리아이들의 나라 우리어린이집 교사

종수야! 늘 활기차고 씩씩한 종수는 이 봄을 무지하게 바쁘게 보낸다고 들었는데,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늘 바쁘다고 했을 때에도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던 너였지만, 막상 내가 대표일 하면서 보육교사 일을 준비할 때 힘들기도 할텐데, 선택하면서도 통 애기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가니, 종수야, 보육교사과정을 밟는 것은 어떻게? 무얼 느끼고 무얼 생각하니? 벌써부터 적성에 안 맞다느니 하면서 부딪쳐 보지도 않고 꾀병부리는 것은 아니겠지? 언니도 옛날에는 부딪쳐 보지도 않고 머리로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애. 가슴이 뜨거워 우리 종수도 내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종수야, 하나의 이야기를 해줄게.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특수보육활성화를 위한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이 있었어. 물론 방과후 교육을 이제 막 시작한 나로서는 안가 볼 수가 없었지. 굉장한 기대를 갖고 간게 사실이야. 오이워트미도 많이 알고 싶었고, 그런데 외국인이 설명하고 통역하는 모습이 많이 낯설기도 했는데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기도 하면서 슈타이너 교육철학이 계속 가슴에 와 닿는 거야. 너도 물론 여러 사상가의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의식(영원성, 정신세계)’에 관

하여 논한 철학자는 없었던 것 같애(있니? 어쨌든...!)

정신생활은 자유 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고, 정치(권리)생활에서는 권동이 지배해야 하며, 경제생활은 형제애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인간은 모두 세가지의 사회체계속에서 살고 있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발도르프 교육학에서 생각하는 이시기 어린이 학습의 기본형태는 본보기와 모방인데 모방은 어른의 시범적인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과 유아의 내적인 유대를 말한대, 어른(교사)이 내적인 자기의 자유를 의식하고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진실할 때, 이러한 어른(교사)의 존재 자체를 보면서 서로 유대감이 형성되고, 유아는 이러한 내적인 유대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거지. 특이한 우리처럼 프로그램 중심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교육자가 주어진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주적으로 자유롭게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하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지의 충동으로 행동(교육)해야 한다는 거야.

참 어렵기도 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앞서 교사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 교육환경도 참 달라. 우리의 교육환경과 참 달라서 슬프기도 했지. 인상적이었던 말들은 '어른이 변하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희망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공부부터 떠나서 방과후의 중요한 인물이고 선생님은 너로 인해서 기쁘다는 걸 알려주고 우리는 같이 사는 것이라는 걸 알려줘야 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 속에서 서로 돕고 사는 이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어른이 아이한테 진실한지 안 한지가 아이는 중요하다'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찾는 과정(연구)을 중요시한다. 그것이 교육이다' '문제선생님한테 문제의 아이가 있다' 등등 마지막 강의 때는 강사가 교육을 듣는 아에게 던진 말이 있어.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은 교사를 통해(모방을 통해)배우는데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있는데, 가슴이 턱 막혔지.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 거야.

나는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웠어.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못 얻었지만 교사로서 새로이 나의 철학을 다지고 희망을 준비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참석 못한 교사들이 많아서야. 현직교사들도, 준비하는 교사들도 모두모두 많이 듣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종수야! 네가 또한 희망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프로그램 운영교육을 다녀와서 3 -

박금희 · 안산시보육정보센터 보육지도원

메너리즘!

보육교사로 만3년이 지나면서부터 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단어이다. 하지만 이미 보육현장에 발을 들여놓고 10년 가까운 시간이 되고 있으니, 참가하는 모든 연수에서 늘 참신한 배움을 갖기란 쉽지 않은 것이 이미 메너리즘과의 전쟁 속에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모처럼 긴장되고 참신한 연수에 다녀왔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제공한 한국보육교사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 간 참가했던 교사연수의 화두는 '발상의 전환'이었다.

우선 3일간의 연수소감의 첫째는 '와, 정말로 독일사람과 한국사람의 사고체계는 다르구나!' 하는 점이었고, 둘째는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수법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이념과 철학, 그리고 진정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이였다. 자세한 것은 연수내용의 소개속에 담고자 한다.

연수참가 소감 글이니 만큼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연수는 전체가 공통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영아/방과후/장애보육의 3개분과로 나뉘는 선택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었고, 나는 장애보육을 선택,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제1강은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의 인간형'이라는 주제의 공통강의였다.

교육과정은 지적측면과 인간적 측면이 있다. 정형화된, 프로그램화된 교육과정은 논리적이기는 하나, 인간적이지는 않다. 느낌의 측면이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느낌, 교사 스스로 '괜찮다!' 하는 느낌이고, 이것은 곧 교사 자신의 교육과정으로의 몰입을 의미하며,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지금, 여기서'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 있는 내가 중요한 것이다. 새로운 관계를 갖게되는 매순간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상황을 느끼게 되는 데, 그것은 아이들의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에 대한 관심'에 교사가 자기한계를 인정하고 변화하려 하느냐 하는 과정, 즉 인간적이고 내면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느냐하는 문제인 것이다. 즉 교사가 아이의 관계에서 성인의 권위-힘-을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도 변화, 발전하게 된다. 때문에 교사는 아이를 지적 호기심의 혹은 가르침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여 서로를 변화 발전시키는 파트너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만나는 아이 한명 한명이 던지는 '질문-문제제기'와 그로 인한 '존재의 한계'를 즐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개할 두 번째 강의는 '교사자신과 아동을 위한 주의력 학습 I'이다.

한 아이가 소위 말하는 폭력적인 문제행동을 하고 있다. 그 아이의 행위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해결이 되는 것인데, 원인은 '육체의 문제인가, 정신의 문제인가, 행위한 '나-교사 혹은 부모'의 문제인가'라는 3차원에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문제를 발견하면 교사 스스로 나의 문제인가/ 그아이의 주변환경-관계-의 문제인가/ 육체의 문제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첫번

제1차원의 경우 실제로 나(교사나 부모)의 어떤 특이한 발음이나 버릇이 그 아이를 자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그 아이에 맞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교육의 핵심이 된다. 두번째 차원의 경우 어떤 아이가 권위적인 전학년 담임에게 질려 배움을 거부하고 내부로 침잠 한다면, 현재 나와 그 아이의 새롭고도 인간적인 관계형성으로 과거 경험을 재해석할 힘을 갖게 함으로써 이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차원인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를 강사는 극복이 쉽지 않은 평생의 과제로 보고 있다.

이 강의에서 세가지들 시사 받게 되었는데, 하나는 '장애가 무엇인가?'와 '관찰의 방법론', 그리고 '교사의 자기성찰'에 대한 것이었다. 연주가와 악기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정신과 몸의 두 요소의 관계, 즉 발란스로 '건강함'을 진단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 강의에서도 언급이 된다. 두 번째는 역시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인데, 방법에 있어 아동을 대상화하는 매순간의 기록을 거부하고 있다. 발도로프에서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동이 하루를 보내고 교사는 저녁때 하루를 회상하는 가운데 그 아이가 어떤 의상과 식사를 했으며, 어떤 순간 행복한 웃음을 보였는지 등등을 기억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교사로 하여금 아동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의 관심과 사랑은 아이에게도 전달되어 인간적인 관계가 생긴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사의 '비판 없는 자기성찰'의 중요성이었다. 만약 나의 빠른 말투가 아이를 자극한다면, 그것은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기비판이 아니라,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수정해야 할 나의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속에서 나는 계속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1강의와도 상통하는 부분이었다.

제2강의에서 기대했던 장애아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마지막 강의로 미루어야 했다. 특별한 문제행동 및 장애아를 지도한 실제사례를 가지고 있는 발도로프 학교의 교사가 강의를 했다. 발도로프 학교에는 당연히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운증후나 뇌성마비 아동이 대부분이라는 점과, 보통 4학년까지 통합하고 그 이후 특수교육기관을 이용하게 된다는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 '교사가 그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이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며, 분리의 시기를 준비하는 것은 발달학적으로 9세 이후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개별적인 관심을 구하는 시기가 되는데, 개별적이고 적절한 공간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여럿일 때 교사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간단한 설명후 참가한 보육교사들이 제기하는 사례를 가지고 발도로프 교육의 관점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상적인 것은 누워있지만 하는 중증장애아에 대한 사례에서 '과연 그 아이가 꼭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가?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일과 삶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었다. 특수교육의 정수는 삶 자체의 경이로움과 가치를 아동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강의 중 '시대적 특성과 문화적 조건에 따른 아동의 행동지체 및 발달지체'라는 주제는 상당히 흥미롭고 우리와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최근 아동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확연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된다고 한다. 즉 과거에는 또래와 싸움을 할 때 주먹을 뻗으면서 주춤거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비디오 등의 자료를 보면 그러한 주춤거림이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변하는 것, 원인이 무엇인가?

강사는 몇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직접경험보다는 TV등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경험의 세상인식을 꼽는다. 물체로 차나 자전거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걷기, 뛰기, 오르기 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하고 극복할 운동의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셋째로 아이들 스스로의 환타지로 놀 수 있는 경우가 제약되고, 성인들에 의해 연령별 활동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난감의 차원에서 나타나는데, 스위치로 전진과 후진을 하는 완전조립의 장난감은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이 아이를 가지고 노는 결과를 낳는다. 아이들은 형질 한 장을 가지고 완관도 만들어 쓰고, 말타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아이들은 운동의 장애를 갖게 되고, 발달이 저해되는 것이다. 즉 정신과 몸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함으로 해서 아이들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강사는 대안으로 많은 프로그램의 제공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스스로 활동을 구성하고 경험하게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건강하고 새로운 어린이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문화는 어떠한 요소를 갖는가? 그것은 실생활과 결합된 유기적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인들은 아동을 위해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아이들과의 활동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함으로써 함께 '절정'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서건 학습을 통해서건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진정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다. 자기자신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아이는 삶의 과정에서 겪게되는 문제를 자기방식대로 헤쳐나가고 또 그럴 힘을 갖게 된다.

그 외 몇 강의에 더 참여했지만, 인상적이었던 강의를 소개해 보았다. 연수기간중 감사나 참여한 보육교사나 서로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 가령 예를 들면, '자폐인 성인과 초기관계 형성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우리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기법을 질문했는데, 강사는 근본적인 출발점을 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통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체계와 철학의 차이이고, 교사 스스로 훈련받은 교육과정과 방법의 차이였다. 각 아이마다 상황마다 다른 접근을 해야하는 발도로프 교육에 대해 우리는 또다시 정형화된 과정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 강의에서 교사와 아동의 '인간적 관계'를 교육의 핵심으로 보는 발도로프 교육에서 우리의 질문이 얼마나 우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당장 일터로 돌아왔을 때 활용할 어떤-구체적인-내용을 일고자 하는 욕심도 사실 포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연수 프로그램을 보고 '음'하며 프로그램을 지레 짐작한 것이 기존의 우리식의 사고방식이라면, 이 연수는 늘 새로운 도전과 응전이 인간을 성장시킨다는 단순한 진리-이것마저 외웠던 것은 아닌지!-를 깨우치게 해준, '발상의 전환'이라는 큰 성과를 준 연수였다.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프로그램 운영교육을 마치고

최순옥 · 본회 사무국장

특수교육의 활성화는 본회의 올해 중점사업의 하나이다.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라 제도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충분한 밑받침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직전교육과 현직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라, 교사들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혼자 해결해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사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드물기는 하지만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고 이미 개발된 특수교육관련 프로그램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느끼는 문제를 가지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교사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우리 회가 이번에 특수교육프로그램 운영교육을 실시한 이유는 바로 고립된 상황에 있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드러내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주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취지로 이번 교육을 준비함에 있어, 앞서 말했듯이 특수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역사가 짧아 현장에서 축적된 내용이 충분치 않기에 국외에서도 강사를 초빙하기로 하였다. 국외강사는 작년 본회 교육센터에서 실시한 '해외유아교육탐색 I - 슈타이너교육철학과 발도르프유아교육'이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어, 실제 세계각지에서 발도르프교육이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의 모임인 국제발도르프킨더가르텐연합에 강사를 의뢰하였다.

또한 이번 교육의 내용구성은 특수교육분야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하였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교사들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조사상의 한계가 있어 부득이하게 우리 회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이 맡고 있는 전체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지, 교사가 주도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교육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 지,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수방법은 무엇인 지, 가정/ 학교/ 시설과의 연계 속에서 본 특수교육시설과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고유한 내용은 무엇인 지, 연령에 따른 특성이나 아이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식은 무엇인 지와 같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의 요구도 있었다. 3일간의 교육에 이 내용을 다 담기에는 무리였지만 그만큼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해주었다. 어쨌든 조사한 내용을 강사들에게 전달하였고 다음과 같이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프로그램 운영교육 내용구성

영아교육	방과후 교육	장애통합교육 및 행동수정
전체강연 1: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의 인간형 강사: Sessmannshausen		
특별코너: 발도르프 영아교육시설의 실재에 대한 환류기 상영 강사: Braune		
전체강연 2: 언어, 동작의 의미와 관계 강사: Schroeder		
현대 영아기의 발달과 의미 강사: Sessmannshausen	방과후의 고유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강사: 유정은	교사자신과 아동을 위한 주의력 학습 I 강사: Schroeder
영아의 보육환경 및 일과구성 강사: 권혜진	방과후 교육구상과 실제 및 질의 응답 강사: Braune	시대적 특성과 문화적 조건에 따 른 아동의 행동지침 및 발달지해 강사: Sessmannshausen
영아와 어른(교사)와의 실제적 관계형성 강사: Braune	교사자신과 아동인식을 위한 주의력 학습 I 강사: Schroeder	보육시설과 치료시설의 연계 및 통합프로그램 강사: 윤 선아
발도르프 교육환경의 실재 강사: Braune	오이뤼프미 강사: Schroeder	
프로그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질의응답 강사: Sessmannshausen/Braune	오이뤼프미의 기원과 이론적 기반 강사: Schroeder	
영아교육의 실제적 질의응답(적용, 신회 감 형성, 대소변 가리기, 문제행동 등) 강사: Braune	방과후 아동기의 심리학적·교육 학적 측면: 교사와 아동의 기질 강사: Sessmannshausen	교사자신과 아동을 위한 주의력 학습 II 강사: Schroeder
영아기의 감각교육 강사: Sessmannshausen	교사자신과 아동을 위한 주의력 학습 II 강사: Schroeder	특별한 문제행동 및 장애아를 지 도한 교사의 실제 사례 강사: Braune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강사: 모든 강사		
추천도서와 강사진과의 평가회의		

이번 교육에는 특수교육전담시설에서 일하는 교사, 일반보육시설에서 특수교육반을 맡고 있는 교사, 사회복지관에서 2-3시간의 특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 저소득층 지역의 공부방 교사, 특수학교나 특수아 조기교실에서 일하는 교사,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교사, 대학교수, 영아나 학령기 아동, 장애아를 둔 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원이 참여하였는데 영아교사나 방과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극히 제한된 보수교육 이외에 특수교육만을 다룬 교육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이런 교육의 자리를 마련한 것을 반가워했고 많은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색다른 교육활동을 제시해주리라 기대하고 온 참가자도 있었고, 이번 교육에 초빙한 국외강사들이 발도르프교육 관련자들이어서 발도르프 교육에서의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었다. 또한 평소 자신의 고민과 과제해결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 등 참여자들의 기대와 요구가 다양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교육의 의도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활동내용의 제시보다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교사가 평소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했는데 현장교사들은 직접적인 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지에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활동을 제공해줌으로써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나칠 정도의 압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나 부모들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강의자 중의 한 사람인 Sassmanshausen씨의 강연 중, 많은 프로그램의 제공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스스로 활동을 구성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 즉 '건강하고 새로운 어린이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교사들은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느낀다.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 누군가가 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라기도 한다. 강의 중간중간 교사들이 자신이 현재상황에서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를 질문하기도 했는데 '정답'을 기대하는 질문들이 간혹 있었다. 독일 강사인 Schreder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상, 관찰, 자기성찰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정답을 기대한 질문자에게는 막연하고 모호한 답변이었을 수도 있으나 교사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아이 자신이 해내는 것이 다른 것처럼 어떤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은 교사 자신의 몫일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 부분적으로 교사들의 요구와 기대와 맞지 않는 바가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교사들이 보육교사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진정한 보육교사는 어떠한가 하는지, 아이들과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교사의 참여동기와 기대는 다양했지만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요구와 관심은 교사인 나의 교육자로서 현재의 모습과 자신의 교육행위를 돌아봄으로써 현장에 돌아가 아이들과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양분을 얻는데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교육에 강연자로 참석한 국내외 강사들은 모두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강의에 임해주었다. 특히 멀리 독일에서 온 세 분의 강사들은 강의 전에 한국의 보육시설 실정을 알고자 두 곳의 영아, 방과후 시설을 방문 견학했으며 강의를 위한 사전 토론은 물론 매일 강의가 끝난 후 참여자들의 반응과 요구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여 다음 날의 강의 계획을 새로 조정하는가 하면, 이번 교육을 모두 마친 후에도 주최측인 우리와 평가의 자리를 먼저 제안하여 주최자로서 우리 단체의 평가를 경청하고 자신들이 느끼고 배운 바를 이야기하는 진지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었다. 현장교사인 Gisella Braune씨는 여러 가지 놀이감을 가방 한가득 가져와 보여주었고 슬라이드를 통해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현장교사인 만류 16년간의 교사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들과 교감할 수 실제적인 내용을 들려주었다. Wolfgang Sassmanshausen씨는 열정적이고 논리적으로 교사자신과 아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깊이 있는 강연을 해주었다. Joerg-Herman Schreder씨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풍부한 표정과 몸짓으로 인상깊은 강연을 해주었다. 참가자들을 나라가 다르고 문화를 아는 어린이들이 달라도 어린이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는 동료로서, 같은 고민과 과제를 가지고 있는 동료로서 대하는 강의자의 자세는 참으로 본받을 만하였다.

교사는 현장에서 순간순간 의문과 질문을 하게 된다. 내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행위가 과연 적절한가를 자문하게 되고 때로는 나는 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어떠한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과연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교사교육이 교사의 이런 질문과 의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완성된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다만 평소 교사가 갖고 있는 의문과 질문에 시사점을 받

나, 어떠한 사례를 통해 교사로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교육행위를 반추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자신의 방법론이 옳은가는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의 모습과 변화를 통해서 검증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고유한 방법론을 찾는 것은 현장에서 교사 자신이 해야 할 몫이다.

3일에 걸친 교육은 끝났지만 과연 이 교육이 우리 단체에 그리고 참여한 교사들에게 또한 강의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앞으로 각각의 몫과 역할을 얼마만큼 의식적으로 충실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우리 단체는 이번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며칠 간의 교육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특수교육분야에 종사하는 현장교사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독일과 한국 교사 간의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자칫 외국의 교육사조와 조류를 추종하는 좋지 않은 풍토가 있어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나라는 달라도 사명감과 신념을 가진 독일과 국내 교사들이 서신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아름다운 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이 작업은 이번 교육의 통역자로 애써주신 윤선영선생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에 강의를 해주신 Gisella Braune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주었고 아울러 Volfgang Sassmanshausen씨가 독일의 영아, 장애,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의 교사들과 우리나라 교사들이 서신교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줄 것을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에 재정적 도움을 준 서울시와 독일강사분들, 강의원고부터 시청각교육자료까지 세세하게 준비해주신 세분의 강사, 윤선아선생님, 권혜진 선생님, 유정은 선생님, 교육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사후작업에까지 도움을 주신 윤선영선생님, 통역을 해주신 박영옥, 박정희 선생님과 행사진행에 도움을 준 회원여러분, 참가자여러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참고로 이번 교육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는다.

총 참석자의 50% 가량이 질문에 응답하였는데 간단하게 결과를 알려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중 보육교사(22명)와 유치원교사(2명)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방과후지도교사들이었다.

둘째, 강의내용과 강의구성에 대해서는 각기 4명과 9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족하다는 결과였다.

셋째, 강의방식에 대해서는 29명이 만족에 12명이 보통에 응답하여 대부분 만족하다는 결과였다. 특히 강사들의 강의내용의 준비정도에 대한 만족도에는 4명을 제외하고 만족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많은 참석자들이 강사들의 열정적인 강의에 대한 언급을 한 점이 눈에 띄었다.

넷째, 참석자들 중 좋았던 점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보육교사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점, 진정한 보육교사는 어떠한가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얻게된 점, 아이들과 혹은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 발도르프교육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싶다는 내용들이 있었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세미나에 대하여 참석자들이 건의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주최측의 기획의도와 참석자들의 요구가 불일치한 측면(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소개가 우선인지, 일반적인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이 우선인지 모호한 점 등), 실제활동 가능한 프로그램제시의 부족(이미 마지막 종합토론시간에 질의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참석자들중 특수교육에 대하여 담당 활동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시되는 줄 오해한 경우가 있었음), 매강의마다 직접 강사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 통역시 다소 의미 전달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등이 지적되었다.

독일보육교사와의 대화 제안

발도르프 종일반 킨더가르텐 및 호르트 교사와의 직업적·개별적 상호작용

윤선영

지난번 행사(특수보육활성화를 위한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발도르프 교육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였던 보육교사 여러분들을 위해 독일 발도르프 영유아, 방과후 아동, 통합보육을 위한 시설에 종사하는 교사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장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물론 발도르프 교육실제와 교사의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에 있으나,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해외 여행을 떠나 직접 발도르프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보육교사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점과, 바로 교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로부터 새로운 시각을 얻고 변화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상호작용 방법 중 하나라는 점에 있습니다. 서신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직접적인 대화에 비추어 볼 때 비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보육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문제상황등과 관련된 사진이나 자신의 의견을 국제적으로 교환하게 되면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며, 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교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한국의 보육교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교사가 한 명 더 늘어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서신의 교환중 번역 문제는 본인이 담당할 것이며, 한꺼번에 많은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으므로, 서신의 선택은 한국보육교사회의 교육부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아마도 한달에 1-2통의 편지가 왕래할 수 있을 것이며, 보낸 편지와 답장은 우리네 아이들에 실리게 되어 여러 보육교사가 공동으로 읽어볼 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 한 개인의 문제는 결코 혼자서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 보육시설에 머무는 50만 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 여러분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참여가 독일에서 초대되는 발도르프 관련 강사진들에게는 한국보육교사를 위한 다음 세미나를 준비하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신을 보내실 교사는 다음에 유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서신을 보내실 곳 : 한국보육교사회
- ② 서신분량 : A4용지 1-2쪽*
- ③ 첨가자료 : 사진, 놀이감, 교재교구, 관찰일지 등*
- ④ 자신이 담당할 그룹의 아동연령, 크기, 그룹의 종류(영아, 유아, 방과후, 혼합연령, 통합보육 등)

* 교사의 글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너무 긴 내용은 줄여지었고 독일어로 번역 중 문제가 있는 개념에 대해서는 외역을 하였습니다.

자연활동과 바깥놀이

임미란 · 부천, 동그라미 놀이방

우리가 아이들과 감수성 많고 자연의 이치를 알고 감사히 여길 줄 아는 활동으로 자연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가서 뛰고 놀 것인가는 무척 고민이 됩니다. 물론 가만 두는 게 가장 좋은 자극이고 그 속에서 날마다 다른 놀이들을 찾아내어 노는 우리네 아이들을 보면서 무척 대견스럽지만 교사로서 자극을 통해 학습과 연관될 수 있는 바깥놀이의 예를 몇가지 모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통신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자연체험 활동의 예

[흙탕물놀이]

하루 날을 잡아 신나는 흙탕물 놀이를 해보자. 비가 내린 후 진흙탕이 있다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면 흙에 물을 부어서 흙탕물 놀이터를 만들어 놀아보자. 흙탕물안에서 흙을 주무르고 구멍을 파고 흙을 가라 앉혔다가 다시 흙탕물로 만들고 .. 진흙 공을 만드는 놀이도 재밌다.

[함정 만들기]

만화나 동화에 나오는 함정 만들기를 해보자. 해변이나 강변, 산과 밭 어디든지 흙만 있으면 가능한 놀이다. 먼저 모종삽 등으로 깊이 20~30cm의 구멍을 판다. 가느다란 나뭇가지나 강변인 경우는 갈대나 억새 등을 이용해 그 위를 덮고 나뭇잎 등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그 위에 주변의 땅과 구별이 안되게 흙을 살짝 덮어놓는 것이다.

[모래관찰하기]

강변, 냇가, 바닷가에 놀러갔다면 현미경을 이용해 모래관찰놀이를 해보자. 모래는 입자가 고운 것부터 굵은 모래까지 크기가 다양하며 햇빛에 비춰보았을 때 반짝이는 모래부터 수정처럼 투명한 것, 검은 색 등 여러 가지 색깔과 모래가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흙태워보기]

여러 장소에서 흙을 모아 잘 말린 후에 불에 태워보자. 점토와 같이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흙은 거의 타지 않고 색도 변하지 않는다. 산이나 밭의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흙일수록 잘 타며 적갈색으로 변한다. 철관 등에 놓고 태워도 좋다. 태우기 전과 후에는 흙의 색깔뿐만 아니라 흙의 무게도 달라진다. 모래나 점토 등은 무게 변화가 거의 없지만 산 속의 부엽토나 논밭의 검은흙은 그 안의 유기물이 타고 수분이 날아가 무게가 줄어든다.

[흙냄새 맡기]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 주변에는 많은 낙엽이 쌓인다. 햇해를 두고 썩은 낙엽 주위의 흙은 유기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 흙을 손으로 긁어모아서 냄새를 맡아보면 시큼하면서도 곰팡이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 향긋하기도 한 냄새가 날 것이다. 또 논이나 밭의 흙냄새도 다르다. 이번에는 집 주변 공원이나 학교 근처의 흙이나 놀이터의 모래냄새를 맡아보자.

[맨발로 흙 밟기]

산의 흙길, 밭의 흙, 바닷가의 강가의 모래, 갯벌 등 다양한 흙을 맨발로 밟고 느끼게 해보자. 양지의 흙은 따뜻할 것이고, 음지의 흙은 차가울 것이다. 또 굵은 모래흙은 꺼칠하고 밭이 아플 수도 있으며 황토는 따뜻하고 보드라운 느낌이 들 것이다. 젖어 있는 갯벌은 미끌미끌 할 것이고 마른 모래흙은 서걱거리며 따금거릴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흙을 맨발로 밟는 체험을 하게 하고 그 느낌을 표현하게 한다.

[나무구멍 관찰하기]

직경 1m가 넘는 고목에는 구멍이 나 있다. 아이들은 이런 구멍에 호기심이 매우 많다. 그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나무 구멍은 청설모, 다람쥐 등과 같은 포유동물이나 찌르레기, 박새 등 새가 통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주로 많다. 구멍 주위에 색이 엷은 것은 새 통지로 쓰이는 것이다. 새들이 발톱으로 구멍 주위를 긁어놓기 때문이다. 뿌리 부근에는 나무가 루가 떨어져 있으면 동물의 집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햇빛놀이]

나무 밑에 서서 가지와 잎사이로 퍼져나오는 햇살을 체험해보자. 봄의 싹, 가을의 단풍, 겨울의 빈가지 등으로 나무가 변할 때마다 햇살의 느낌과 퍼지는 정도 색깔이 다르다. 그 느낌의 차이를 말로 설명하게 한다.

[꽃씨름놀이]

여러종류의 풀이나 꽃으로 씨름놀이를 해보자. 솔잎은 한 개의 잎이 두갈래로 되어 있는데 이 갈라진 부분을 벌려 두 개의 솔잎을 서로 교차시켜 잡아당긴다. 먼저 떨어지는 쪽이 지는 게임이다. 제비꽃이나 자운영 꽃을 서로 엮은 후에 잡아 당겨 꽃이 먼저 떨어지는 놀이도 재미있다.

[식물의 즙 관찰하기]

꽃이나 열매, 잎, 풀 등을 으깨어 즙을 짜보자. 화려한 색의 꽃에서 무색의 즙이 나오기도 하고 흰색의 꽃에서 유색의 즙이 나오기도 한다. 갖가지 식물에서 즙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재미가 있지만, 이 즙을 이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우선 식물의 즙은 산성과 알칼리성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알칼리성인 비눗물과 산성인 식초를 짜내어 도화지에 한 쪽의 그림을 완성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물공작놀이]

갖가지 풀의 특성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공작놀이를 해보자. 강아지풀, 억새 등의 벼과 식물은 간단하게 뜯히는데, 이것으로 곤충을 만들어보고 허넛줄로 지네를 만들어보자. 자운영이나 클로버의 꽃을 많이 모아 묶고 엮어서 화관이나 꽃목걸이, 팔찌, 반지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물어보기]

마당이나 길가의 풀을 찢어보자. 풀을 찢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액이 나오는지, 또 잘 찢어지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민들레 줄기와 잎을 찢어보면 흰유액이 나온다. 애기똥풀은 누런 유액이 나온다. 쉽게 찢어지는 풀도 있지만 수크림과 같은 것은 잘 뜯히지도 않을 뿐 더러 잘 찢어지지도 않는다. 채기풀과 같은 것은 만지면 따금 따금 거려서 고생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로 물치기]

바다, 강, 저수지 등 물이 많은 곳에서 돌로 물치기를 하면 재미있다. 크기와 모양이 각각 다른 돌을 이용해서 물치기를 하면서 물에 봉겨지는 소리와 감도 등을 관찰해본다.

[돌로 그림 그리고 글씨 쓰기]

관관한 돌을 캔버스로 생각하고 그 위에 작은 돌맹이로 그림을 그려보자. 돌맹이마다 노란색, 흰색, 붉은색 등 색이 다르거나 명도가 다르다. 이런 돌맹이를 여러개 모아서 관관한 돌에 그림이나 글씨를 써본다.

[석기만들기]

큰돌이나 망치 등을 이용해서 돌을 쪼갬다. 이때 파편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깨진 돌의 날카로운 면을 관관한 돌에 갈아서 칼, 도마, 도끼 등 석기를 만들어보자. 돌을 충분히 그을린 후 찬물을 넣어 급히 식히기를 반복하면 돌이 쉽게 부서진다.

[재미있는 돌 찾기]

돌이 많은 강에 가서 새를 닮은 돌, 사람형상 등 여러 가지 모양의 돌을 찾는 놀이를 한다. 주제를 정해놓고 그와 가장 비슷한 돌을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도 재미있다.

[돌악기만들기]

넷가나 강가에 굴러다니는 돌을 망치나 다른 돌로 두들겨 보자. 암석의 종류와 크기, 형태, 밀도에 따라 소리가 다르다.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돌도 있는가 하면 둔탁하고 거친 소리를 내는 돌을 모아서 줄에 각각 매달아 망치나 돌로 때리면 훌륭한 돌악기가 된다.

[돌 냄새맡기]

돌끼리 서로 세게 부딪힌 후에 냄새를 맡아보자. 돌끼리의 마찰로 인해서 타는 냄새가 나는데 이것은 생물이 타는 노린내이다. 돌 표면에 붙어있는 박테리아나 이끼 등의 유기물이 탈 때 이런 냄새가 난다. 여러 가지 돌을 이용해 마찰을 시킨 후 냄새를 맡아보고 그 차이점을 느껴보자.

[돌 그림 그리기]

조약돌과 같이 반들반들한 돌을 예쁘게 꾸며보자. 돌 위에 물감을 이용해서 예쁘게 그림을 그리

면 재미있다. 물감으로 칠한 후 그 위에 래커를 칠하면 영구 보존할 수 있다. 사람얼굴, 산, 동물모양 등 아이가 둘의 모양에 맞게 원하는 그림을 그리게 한 후 장식품으로 활용한다.

[풀피리 만들기]

두께가 얇은 나뭇잎이나 풀잎을 찾아 손을 마주 댄 상태에서 양 엄지 사이에 끼운다. 그리고 엄지 사이에 끼워진 풀잎에 입술을 대고 바람을 불면 피리소리가 난다. 닭소리, 강아지소리, 돼지소리 등을 흉내내는 놀이를 해본다.

[나뭇잎 베껴 편지 쓰기]

나뭇잎이 뒷면으로 오게 해서 딱딱한 받침을 댄 얇은 종이 밑에 대고 연필이나 색연필로 베껴 다. 나뭇잎 겉 무늬가 그대로 베껴 나온다. 다양한 색연필로 여러 모양의 잎을 베껴서 여백의 공간에 쓰기를 한다.

[나무 껍질 벗겨서 글씨 쓰고 그림 그리기]

굴참나무 등은 나무껍질을 손으로 쉽게 벗길 수 있다. 껍질이 벗겨지는 나무는 나무를 손으로 눌러보면 묵직한 느낌이 든다. 나무껍질은 얇기 때문에 이 위에 각가지 그림과 글씨를 쓸 수 있다. 또 굴참나무 껍질을 태운 숯으로 얼굴에 그림 그리기를 해본다. 재미도 있지만 나무 자체의 성분 때문에 각종 피부병이나 피부 알레르기 등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쑥물로 그림 그리기]

인근 야산이나 들, 공원에 가면 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쑥을 돌로 짓이겨서 거즈 손수건에 싸면 쑥물이 배어 나오는데, 이것으로 하얀 천이나 종이에 찍어보거나 그림 그리기를 한다. 물푸레나뭇잎을 물에 넣으면 푸른 색깔의 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대로 천연염색료가 된다. 여기에 흰천을 넣으면 푸른색으로 자연염색이 된다. 더 맛을 내려면 흰천에 피라핀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무늬를 그린 뒤에 넣으면 파라핀이 붙은 부분만 무늬가 되어 염색이 된다.

소파방정환탄신 100주년 기념

76년 만에 '어린이선언' 재현

공동육아연구회(대표조형), 남북어린이어깨동무(대표 권근술), 어린이도서연구회(대표 조영환)등 어린이운동단체들은 소파 방정환선생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1일 대하로 '어린이 평화의 집'에서 <새천년 어린이선언>은 1923년 5월 1일 선포된 최초의 어린이 선언문의 뜻을 살려 현대에 맞게 30명의 어린이 대표들이 직접 작성했다. 76년 전의 최초 어린이 선언문이 '소년운동의 기초조건', '어른들에게', '어린이운동들에게' 각각 다짐한 사항과 맞가지 실천 사항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새천년 어린이선언>도 어린이운동의 아아갈 길, 어른들께, 어린이운동들에게, 그리고 실천사항으로 구성됐다. 실천사항에는 ▲어린이들은 평화'생명'광의 새날을 만들어 갈 사람들이다 ▲어린이들을 차별하지 말 것 ▲어린이들은 또래들과 함께 자라야 한다 ▲어린이들은 생명이 가득한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말 것 ▲어린이들은 바람직한 문화활동을 즐겨야 한다 ▲남과북의 어린이들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놀게 하자 등이 있다.

이날 어린이 선언문 선포식에 이어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은 선언문이 담긴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대하로에서 방정환 선생의 생가터인 새문화화관 분수대 광장까지 평화의 행진을 펼쳤다.

여성신문 이길 정희 기자

방과후 활동 사례발표

윤은주 · 현재 마들창조학교 교사/전 통통어린이집 방과후 교사

보통어린이집 방과후 아동지도는 마음껏 뛰놀면서 공동체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배워나가는 것, 그리고 아동의 발달에 요구되는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창의성을 키워나가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교사와 아동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활지도,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 놀이, 그리고 또래나 동생들과의 놀이를 통해 담아내고자 했다.

1. 대상 : 초등학교 1, 2학년, 7세(6~8명)
2. 방과후 학교 이름 : 공동육아 노원지역 통통어린이집 내 두근두근 탐험대
3. 가정 환경 : 맞벌이 가정으로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으며 아이들의 교육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4. 보육 환경 : 어린 동생들과 함께 지냈으며 탐험대만의 공간을 갖기에는 실내공간이 부족했다. 실외활동 공간으로 불암산과 중고등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바깥놀이를 하기에 좋았다.
5. 하루 생활 및 활동

터전에서의 생활 및 활동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주,달 계획회의 속에서 결정되었다. 진행된 활동은 연구활동, 실험, 요리, 신문 만들기, 덩더쿵 우리 노래 배우기, 도서관 가기, 문화감상 활동, 자연놀이, 전래놀이, 자유놀이 등이다.

◆ 11월 일 계획안 ◆

일	화	수	목	금	토	일
27 덩더쿵	28 아동극	29 공동체하기	30 실험	31 신문만들기	1 →	2
3 공동체시계회 공동체유기작업	4 초대장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5 산에서 나무해오기	6 만나들이 -63발단화전	7 공동체내관만들기 바자회	8 신발장 짜기	9
10 공동체내관 만들기	11 아동극 산에서 나무해오기	12 요리(삼육이네) 행사장 꾸미기	13 행사장 꾸미기	14 총정리	15 공동체시 회(3시)	16
17 가장무도회 준비도입	18 윤자생일 아동극	19 ← 가장무도회	20 실험 준비	21 →	22 교사 큰회의	23
24 신문만들기 기획회의	25 현준이 생일 가장무도회	26 신문만들기	27 요리(현준이네)	28 신문만들기 기획회의	29 동생들 과 놀기	25

6. 평가

◆ 연구활동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연구계획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이들의 통합적인 인성발달에 많은 도움이 되며 활동 후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초에는 모든 활동이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의 꽃씨, 벽화그리기, 토끼 키우기 등 모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점차 다른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시간적으로 여유 없이 진행되었고 아이들끼리 서로 친밀해지면서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요구를 받아들여 놀이 시간을 늘리고 연구활동의 주제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흥미와 놀이 속에서 연구활동의 주제를 찾아 주며 연구활동 시간을 배정하였다. 운동장에서 거리재기, 큰 공룡잡기 등이 그때의 활동이다.

-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를 바탕으로 연구활동이 진행되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했다. 활동 후 아이들은 성취감을 얻고 두근두근 탐험대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
- 연구활동이 폭넓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자료,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나들이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그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교사의 언어자극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 자료들도 제때에 제공되어야 한다.
- 교사의 주도면밀한 준비와 아동관찰이 필요하다.
- 남아와 여아의 관심거리가 다르다. 공통된 주제를 찾는 것과 동시에 남녀의 흥미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에 맞는 주제도 선정되어야 한다.

◆ 활동이 중심이 아닌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방과후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터전에서 지낸다. 초기에는 다양한 활동으로 즐거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일상적인 생활(학교 친구들과 놀기, 빈둥거리기, 조용한 시간 갖기, 방해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하기 등)을 하고 싶어하며 자기만의 세계를 필요로 했다. 교육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같은 일락함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과정에 적합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하루 일과는 아이들의 생활 리듬을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 그리고 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아이들의 무리한 행동 등 일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에 나설 것인가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며 일으키는 또래와의 관계 문제, 학교생활에서 오는 갈등, 배타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커가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치며 겪어야 할 문

제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했으나 교사나 부모 모두 성급하게 대응을 했다.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오는 당연한 행동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개인의 문제를 전체화시키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성장과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를 여유를 갖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교사와 부모들이 같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속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공동체 생활에서 갖는 어려움

- 아이들에게 적절한 자유가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가 지나쳐 공동체 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통통어린이집에서는 허용선을 분명히 하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었다. 허용되어서는 안될 부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에게 해를 주는 행동,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 등이다.

◆ 바깥세계의 영향

아무리 어린이집에서 통제를 한다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T.V. 오락, 군것질, 학교에서 본 좋지 못한 행동의 영향 등 바깥세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 속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다.

◆ 혼입연령이 갖는 장점을 확대

어린 동생들과 같이 지내며 아이들은 스스로 동생을 돌보는 방법을 터득하고 형으로써의 역할을 배워나갈 수 있었다. 어린아이들 또한 형들의 모습을 보며 놀이를 배우기도 하고 형들의 생활이나 모습을 선망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크고자하는 강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었다. 한 아이는 두근두근탐험대에 들기 위해 빨리 학교가기를 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동기는 그 아이로 하여금 생활하고 놀이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장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루 생활을 계획하고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간의 협력작업과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특기교육에 대한 관점

통통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자모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해 아무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아이들이 '-를 배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해줄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우리 아이가 뒤쳐지지는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무엇보다 교사와 부모가 우리 어린이집 교육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특기교육을 고민해봐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평동어린이집이 계절마다 캠프를 가는 이유는?

이기원 · 수원, 평동어린이집

푸르름이 더해 가는 5월 평동어린이집은 1주일중 3일은 바깥놀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루는 열아반, 이들은 유아반의〈자연학습=야외수업〉날 때 문이지요. 언제부터인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육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 거의 10년동안 동네든, 공원이든, 산이든 틈만 있으면 나가느라 정신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도 있었지만 자연과 더불어 삶을 가꾸고 싶은 선생님들과의 의견일치 때문이지요. 평동어린이집은 4월부터 10월까지의 야외수업으로, 11월부터 3월까지의 박물관 견학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캠프〉행사를 계획하고 작년에 소위〈가을 농장〉이라는 이벤트식 캠프장을 갔다와서 '캠프'문화의 심각성에 다시금 고민했습니다. 정해진 코스와 아이들을 기만(?)하는 밤 놀이, 고구마 캐기 등 한 권으로 어이가 없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요. 그러다 수원여성회에서 소개해준 〈산골아이들 놀이학교〉프로그램을 보고 '그래, 바로 이곳이구나, 결정을 했습니다. 첫 캠프는 1월에 다녀왔고 주요 프로그램은 각종 전래놀이와 자연을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후 선생님들과 캠프평가를 하며 아이들에게 일회성 행사식 캠프보다는 한곳을 정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변화를 느끼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후로 봄 캠프를 4월 22일-23일 1박2일로 다녀왔고 〈봄의 아름다움〉을 실컷 느끼고 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100%만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기억하고 맞아주시는 그곳 선생님들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계룡산 옛날집등, 21세기에 점차 보기 힘든 자연환경을 맘껏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캠프를 다녀와서는 '너무 힘들었다.'라는 선생님 평가가 나오곤 합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부모님도 모두 한몸 한뜻이 되어 누릴 수 있는 〈캠프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7월초면 〈여름캠프〉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선생님, 심지어 부모님까지 '여름'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 속에서 평동어린이집 아이들은 〈자연의 아이들〉로 커나가겠지요. 아이들에 관련된 모든 것이 〈상품〉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연구하고 실천하는 우리부터 〈상품〉으로 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봄의 색깔, 여름의 시원함, 가을의 풍성함, 겨울의 포근함을 아이들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절 캠프를 평동어린이집에서 만들어 갑니다.

참고 산골아이들 놀이학교연락처 상담전화 0416-857-0697

어린이날 행사 묶음

편집부 엮음

5월 5일 부산어린이날 한마당을 마치며...

김계화 · 부산, 칙칙족족어린이집 교사

작년에 조카들을 데리고 구경 갈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부산교육대학교에 발을 내디뎠다. 준비부터 일일이 재료를 구하기 위해 남포동을 회장님과 함께 누비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걷는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었다. 부산보육교사회는 유아마당을 준비하였는데 작년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준비한 재료가 모자랄 지경 이었다.

해가 갈수록 어린이행사 준비가 잘 되어 가는 것도 있지만, 엄마,아빠의 시각도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다. 보여주기 식의 행사처리가 아닌 준비부터 행사의 진행, 마무리까지 교사 한명, 한명의 수고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더 많은 유아들의 발걸음이 여기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아이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을 미리 찾아주고, 보여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진 교사가 많을수록 이 행사의 진정한 의미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무리단계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흩뿌려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아이들이 텔레비전 접기를 하여 만든 것을 보며 '고맙습니다' 인사하며 좋아하고 뛰어가는 모습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되었던 생각들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시커멓게 탄 나의 얼굴과 손을 보면서 이제서야 나도 보육교사로서의 첫 관문을 통과한 듯 가슴이 뿌듯해짐을 느끼며, 아이들의 마음에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행복했다.

제3회 '99 구로 어린이 큰잔치를 마치고

김옥희 · 서울, 새터어린이집 교사

이번 어린이날에도 어김없이 구로 어린이 큰잔치가 열렸다. 이번에는 그 전에 참여했던 구로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전교조 남부지회가 처음 동참하게 되었다. 또 이번 어린이큰잔치는 새로 뭉친 남부보육교사회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남부보육교사회에서는 무척 중요한 잔치였다. 준비회의는 4월초부터 각 단체의 준비위원들이 이번에도 구로시민센터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다. 참여 단체는 구로시민센터, 전교조남부지회,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남부보육교사회, 구로신문사, 문화공간, 구로청년회, 좋은 이웃들, 이렇게 8단체였다. 이번에는 여성 노동자회는

자체 내 사정으로 실제 준비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고 대표로만 참여를 했다. 너무 촉박하게 모임을 가졌고 참여하거나 나처럼 준비모임에는 처음 참여하는 것이다. 다들 좀 정신이 없었다. 우선 첫번째 모임 때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모든 행사를 총괄할 집행위원장을 뽑고 홍보담당을 구로 신문사에서 하기로 하고 기획안을 내기로 했다.

이번 행사의 사업 배경과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 1) 열린 놀이 마당을 많이 접하게 하여 공동체 의식과 건전한 어린이 문화를 형성시킨다.
- 2) 다양한 만들기 마당을 배치하여 환경의식과 창의성을 기른다.
- 3) 역사 문화 마당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며 지역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
- 4) 가능한 모든 마당이 장애아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과 평등의 소중함을 익히게 한다.
- 5) 구로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6) 2년간 축적한 행사를 보다 발전시켜 지역주민 모두가 참가하는 연례 행사로 자리잡아 지역의 5월 가정, 청소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 7) 전교조 남부지회의 조직적인 참가로 행사의 규모를 보다 풍성하게 하고 일회적 행사의 성격을 넘어 특색 있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기획안은 전과 거의 비슷했다. 몇 개의 마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마당은 신나는 놀이 마당, 생태 마당, 동화 마당, 유아 마당, 미술 마당, 전통문화 마당, 나라 사랑 마당, 전시 마당, 공동체 놀이 마당, 미니 장애물 마라톤 대회, 부모님께 엽서 쓰기, 장터 마당 이렇게 12마당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생태 마당, 유아 마당, 나라 사랑 마당이 새로 신설된 마당이었다. 그리고 종전의 '미니 마라톤'에 '장애물'을 첨가 시켰다.

유아 마당과 동화 마당 중의 인형극 공연을 남부보육교사회가 맡게 되었다. 남부 보육교사회는 이제까지 미술마당을 해 왔었는데 그 동안 마당을 하면서 우리들이 돌보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에게 치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해서 유아 마당을 신설하게 되었다. 인형극은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하는 것 중 하나인데 1,2회 때 인형극을 공연했던 「새날 여성회」에서 불참을 해서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씩씩이 어린이집에서 전에 인형극을 공연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인형극을 하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이었다.

장애아와 함께 하는 마당도 기획이 됐었지만 여러 논의 끝에 충분한 기획을 해서 내년에 마당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일이 촉박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마무리되고 해결되면서 드디어 행사 날이 되었다. 유아 마당은 홀라후프 터널 통과하여 사탕먹기, 찰흙 놀이, 손바닥 찍기, 무호 놀이 이렇게 4개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생각보다 교사들이 늦게 오고 못 오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씩씩이 자활들이 많이 와서 원활하게 준비와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유아마당」이라 내걸고 진행을 했지만 찰흙놀이 나 손바닥 찍기는 초등학생들에게도 열어 두었다. 준비한 재료가 부족해 일찍 끝나기는 했지만 올해 어린이 큰잔치는 전과 다른 이변이 많이 나왔다. 아이들이 별로 안 모였던 무호 마당에 아

이들이 끊임없이 오고 찰흙 마당에서 장난만 치던 초등학생들이 진지하게 작품을 만들고... 다른 마당에도 아이들이 많이 와서 준비에 미흡했던 것보다 성황을 이루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미안했는지도 모른다.

인형극 제목은 스폰지 인형으로 만든 「통찰한 돼지 임금」과 스티로폼으로 만든 「방귀 시합」이었다. 이경녀 선생님과 자활들이 같이 공연을 했는데 어수선하고 앰프가 너무 작아 힘들었을 텐데 이경녀 선생님의 넘치는 리더십과 말솜씨가 발휘되어서 아주 성황을 이루었다.

처음 참여한 씩씩이와 최인숙, 이지희 선생님들도 자기가 맡은 마당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셨다. 제3회 구로 어린이 큰잔치는 아이들이 3000명 정도-작년 2000명 정도-어른 2000명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가 갈수록 참여 인원이 늘어만 가는데 장소가 좁은 편이다. 편의 시설 역시 그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를 섭외하고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획안을 마련하자는 평가들이 나왔다. 전교조에서는 단체마다 어린이 단체를 만들어 이 행사를 5월5일에만 하지 말고 며칠씩 진짜 잔치처럼 열어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내년에는 전교조 남부지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로 하고 평가를 마쳤다.

격무에 시달리며 힘든 일이지만 잔치 때의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떠올리며 내년에는 더욱 충실한 잔치를 열겠노라고 다짐해 보았다.

예년과 다르게 치뤄진 광주의 제3기 보육학교!!

광주.전남보육교사회

올해로 3기째 접어든 보육학교(4월 22일-24일)는 강의 내용을 교사회 내부에서 준비해냈다는 점에서 예년과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었다.

강의는 모두 2강을 준비했다.

첫번째 강의는 서울지부의 김연숙선생님이 "새로운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자"라는 주제로 소식지 '우리네아이들'에 연재했던 내용 중 공동체 교육에 관한 강의를 뽑아 맡아 해주셨다. 강의 제목은 '공동체 지향을 위한 대그룹 활동과 소그룹 활동'이었다.

공동체 교육이라 함은 한국보육교사회가 지향하는 아동교육 목표중의 한가지로써 그 구현은 몇 가지 정해진 활동이 아닌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번 강의는 그 중에서도 특히 '놀이'를 통한 공동체 지향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실제강의에서는, 비록 일반 교사들까지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일수도 있겠지만 '공동체란 무엇

인가'에서부터 공동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뒤이어, 참여했던 선생님들과 시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룹 활동들을 직접 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시간의 제약상 준비했던 것 중 몇가지 활동은 설명으로만 그쳤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두번째 강의는 '우리 장단을 활용한 음률활동'으로 저희 보육교사회 회원인 김영금 선생님이 그동안 어린이집 국악교육을 행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를(실내1번, 야외1번)에 걸쳐 진행해 주셨다. 국악 교육은 저희회가 열었던 때 보육학교 때마다 진행했던 강의로 "이제는 조금 진부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강의를 준비했던 선생님의 마음은 무겁고 부담스러웠다고 이야기 했지만 예전과 다른 강의 형식으로, 야외에서 직접 악기로 한,두장단이라도 익히는 시간을 가져서 인지 의외로 참여했던 선생님들의 반응은 좋았었다. 그날은 날씨도 한 못했던 것 같다. 따스한 햇살에 실랑실랑 봄바람까지...또 새로운 것뿐 아닌 기존에 국악교육 자료로 나와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자는 의미로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나온 '유아를 위한 우리 체조'를 소개하기도 했다.

2강을 맡으셨던 선생님은 보육학교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기 위해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짧게라도 강좌를 열려고 준비중이시다. 아무쪼록 잘 진행되길 바란다.

이번 보육학교는 비록 적은 인원(20여명)이 참여하였지만 처음 참여했던 선생님이 마지막 날까지 함께 했으며, 장소의 적절성(광주전남연합의 도움이 컸음)과 강의의 진지한 진행, 또 효율적 예결산 및 사전 준비에 있어서의 적절한 역할분담등 여러가지로 아담하고 오목조목한 행사였다는 평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 내용을 가지고서 최대한 홍보를 했으나 일반 교사들의 참여가 극히 낮았다는 점과 행사를 마친 후에 성과가 무언지 뚜렷이 보이지 않은다는 점, 이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대중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목표가 일반 교사들에게 우리 회를 알려내고 좀더 함께 할 수 있는 교사들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혹 보육학교 뿐 아닌 기존, 우리 회의 대중행사의 기획이나 실행 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다시 재검토해 봐야하겠다.

그리고 위 두가지 문제를 낳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없는지 또한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만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디 갈지라도, 함께 그 의견을 모으고 나눠야만이 회는 물론 회원 개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후 빠른 시일 안에 회원들이 의견을 구체적으로 나눠볼 생각이다. 다른 지부에서도 저희 회를 바라보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주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임신 4개월의 몸으로도 먼 곳 광주까지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김연숙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자축하며

진경선 · 서울, 거평어린이집 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거평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경선이라고 합니다.

5월 16일 저희 서울지부에서는 스승의 날을 자축하는 뜻에서 과천 서울대공원에 모였습니다.

모처럼 야외에 나와 푸른 잔디밭에 앉아 싸운 도시락을 서로 바꾸어 먹는 기분은 마치 아이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맛있는 점심식사 후 미술관을 관람했어요. 좀 아쉽더군요. 마음은 동심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일까요? 아니면... 하여튼 놀이공원을 뒤로 한 채 모 영화의 제목처럼 「놀이공원 옆 미술관」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생각해 보니 수도 없이 왔었던 서울랜드지만, 미술관은 처음이었어요.(반성을 해야할 것 같죠?) 그래서인지 모든 것이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어린이 미술관이었어요. 그 곳에는 아이들의 티없이 맑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우드락 핑거 페인팅, 종이로 오려 붙인 작품,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 등... 처음 접하는 이색적인 작품들이 많았어요. 말로 표현이 안될 만큼.

선생님들께서도 무척 궁금하시죠? 시간 내셔서 한번 가 보세요. 정말 좋다니 까요.

신기한 나머지 구석구석까지 놓치지 않고 관람을 하고 나니 다리도 많이 아프고 해서 밖으로 나와 5월의 신선한 공기를 한껏 마신 후 소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간식시간과 보물찾기, 거기다 선물까지.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다른 선생님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요.

스승의 날 이러니 하게 학생은 하나 없고 선생님들만의 자축을 한 게 못내 서운했지만 한 가지 잊은 게 있었어요. 우리도 한 때는 학생이었다는 걸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함이 들었어요. 내년 스승의 날은 선생님을 찾아뵙어야 할 것 같아요. 카네이션도 가지고 말이에요.



사고와 응급처치

민용식 · 순천향대학교 소아과교수

의학의 발전과 위생 상태의 개선으로 감염 병이나 영양장애에 의한 사망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불의의 사고가 1세를 넘은 소아의 사망원인으로서 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소아의 치명적 사고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약 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익사이며, 추락, 화상, 중독, 자살, 타살의 순으로 많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신경을 써서 주의를 하여도 아이가 자라는 동안 생각지 못한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앞서야겠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 위급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적절한 응급처치 하는 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 가위, 렌, 연필, 칼, 송곳 등 끝이 뾰족하여 다치기 쉬운 것, 담배, 악풍, 단추

등 아이가 삼키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것, 어항, 안경, 선풍기 등 아이가 만져 넘어지고 깨뜨리기 쉬운 것, 기타 전열기구, 뜨거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 등등 위험한 물건은 아이의 주위에서 치워놓아야 합니다.

위험한 장소: 엄마의 시선이 미치지 않을 때 기어간다든지 뒷걸음을 치다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넘어지기 쉬운 장소는 미리 보호설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환경정비: 집안의 가구나 도구의 배치 등 환경의 정비를 잘해 둡니다.

복장: 주렁주렁 장식이 붙은 옷, 너무 헐렁한 옷,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 너무 큰 신발들은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기타: 아이가 지치지 않도록 생활의 리듬 조절이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

자동차 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1985년 18.4명이던 것이 1994년에는 35.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령으로는 3-9세가 가장 많았고, 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 당하는 사고보다는 길을 가다가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부모나 보호자가 없이 길을 건너려고 차도로 뛰어 들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어린이용 안전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앞좌석에 타는 것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수칙에 대한 조기 교육, 어린이용 안전 좌석의 사용, 어린이를 뒷좌석에 앉히는 것 등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 추락

추락사고는 두 번째로 많은 사고로서 어린이가 걷기 시작하고 부주의한 운동이 심한 1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소아(1세-6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고 장소는 계단, 놀이터의 놀이 기구, 옥상, 베란다, 책상, 가구,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고 등이 많습니다. 두부 손상이나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수가 많으므로 주위 환경의 개선, 보호자 및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및 보호시설의 설치 등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은 뜨거운 물, 증기나 물체에 의한 것과 화염에 의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70-80%가 집안, 특히 부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뜨거운 물, 커피나 주전자에서 끓는 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상은 주로 3-4세 이하에서 많습니다. 어떤 정도의 화상이든 먼저 화상부위를 차게 해야 합니다. 흐르는 수돗물이나 얼음물로 충분히(적어도 15-30분 정도) 식힙니다. 옷을 입은 채 뜨거운 물로 데었을 때는 옷을 벗기기 전에 찬물로 충분히 식힌 후 벗깁니다. 만약 벗기기가 어려울 때는 그 부위를 가위로 찢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바셀린이나 봉산연고를 거즈에 발라 화상부위를 덮어주고 붕대를 가볍게 감아 줍니다. 심하게 아플 때는 얼음주머니를 만들어 얹어 주면 한결 낫습니다. 물집이 생겼으면 터뜨리지 말고 그냥 두어 저절로 주그러들어 속에서 새살이 나와 물집 겹데기가 자연히 벗겨지게 됩니다. 만약 물집이 터졌으면 가위나 핀셋을 끓는 물에 10분 정도 소독하여 터진 물집을 잘라 냅니다. 화상의 부위는 오랜 시간 공기에 노출되면 후에 흉터가 남게되므로 공기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붕대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상당한 부분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깨끗이 땀 큰 타월 등에 2% 중조수나 물을 적셔 몸 전체를 감싸고 즉시 병원으로 가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은 가벼운 화상이라도 곧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1도 화상: 피부가 빨갛게 되어 붓음을 호소하는 정도

제 2도 화상: 피부가 부어오르고 물집이 생기는 정도

제 3도 화상: 피부가 거무스름해지고 점막이 떨어져 지무르는 정도

● 머리를 부딪혔을 때

아기가 몸을 굴릴 수 있을 때가 되면서부터



어린이와
건강

는 침대나 유모차, 현관에서 떨어지는 일, 계단에서 구르는 일 등으로 머리를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가벼운 머리의 상처는 사고 후 즉시 물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15분쯤 물다가 물음을 그치고 혈색도 보통 때와 같고 토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토하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위험하지 않으므로 대개는 관찰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머리를 부딪히고 난 후 얼굴이 창백해지고 토하며 식욕도 없고 자주 늘어지려고 할 때는 뇌에 손상이 있거나 머리 속에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선생님을 보여야 합니다. 부딪힌 날은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2-3일 또는 일주일쯤 지난 후에 토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두통이 계속될 때에도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갈 때는 뒤통을 높이고 머리를 차게 하고 다리를 따뜻하게 하여 안정을 취한 다음 데려 갑니다.

● 무엇을 잘못 삼켰을 때

아기의 질식사고는 흔히 얼굴을 뒤덮은 경우나 구토를 할 때 그 찌꺼기가 기관지에 들어갔을 때 또는 단추나 땅콩, 동전 같은 이물질을 입에 넣었을 경우에 일어납니다. 목에 걸렸을 때는 순간적으로 괴로워하며, 기관지가 막혔을 때는 격심한 기침과 함께 호흡곤란이 되며 순식간에 얼굴빛이 푸르게 변합니다. 재빨리 아기를 거꾸로 세워 등을 세게 두드리고 아기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토해 내도록 합니다. 호흡을 할 수 없고 맥이 풀려 얼굴과 입술이 새파랗게졌을 때에는 곧바로 인공호흡을 시키고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데려갑니다.

○ 동전을 삼켰을 때

먼저 얼굴을 아래로 하고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토하게 한다. 무리하게 손을 넣어 꺼내려 하면 식도를 다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왼손은 아이의 등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갈비뼈 사이를 두드리거나 아이를 안아 옆구리에 끼고 손바닥으로 등을 세게 두드리게 되면 동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거나 제거된 후에도 숨이 트이지 않으면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끈이나 유리 조각 등 토하게 했을 때 식도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삼켰다면 토하게 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 독물·약물을 먹었을 때

약물이나 화학 물질을 잘못 먹는 사고는 1-5세 연령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른들이 부주의하게 놓아둔 약이나 화학물질을 어린이들이 잘못 먹거나 호기심으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먹게되는 약물은 가정에서 흔히 복용하는 감기 기침약, 항히스타민제, 위장약, 신경 안정제, 삼혈관약(고혈압에 대한 약), 항생제, 결핵약, 비타민제, 호르몬제, 피부약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약으로는 해열제, 항생제 등이 시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맛이 있어서 많이 먹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는 집안의 소독약, 살충제 등 아기가 먹어서 위험한 것을 아기 손이 미치는 곳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행히 위험한 약들을 먹었을 경우에는 먹은 것이 무엇인가 또는 얼마만큼을 먹었는가를 알아야 하며 병원에 갈 때에는 빈병, 또는 남



어린이와
건강

은 약을 가지고 갑니다. 대개의 독극물을 마셨을 때에는 즉시 한 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2스푼 정도의 소금을 타 먹여 토하게 하거나 입속에다가 손가락이나 둔한 손가락 끝을 깊숙이 넣어 목안을 자극하여 토하도록 합니다. 토한 후에는 우유를 약간 먹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표백제나 가성소다, 제초제 등, 부식성이 있는 약제나 휘발성이 있는 석유나 페인트류를 먹었을 경우에 토하게 하면 위와 식도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 토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찬물이나 우유를 조금 마시게 한 다음 급히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담배를 먹었을 때

담배 한대에는 15-20mg의 니코틴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영아의 치사량의 2배에 해당하므로 아이가 삼키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에서 흡수가 서서히 일어나고 또 처음 흡수된 니코틴의 작용으로 구토가 일어나게 되므로 다 흡수가 되지 않으므로 사망률은 높지 않습니다. 우선 아이에게 우유나 물, 낱 달걀 3개 정도를 먹인 후에 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4시간이 지나서도 증상이 없을 때는 안심해도 되나 담배가 제거되지 않거나 제거된 후에도 숨이 트이지 않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서 위세척을 해야 합니다.

○ 체온계의 수은을 먹었을 때

입으로 체온을 재다가 또는 어린이가 체온계를 물고 놀다가 체온계가 깨져서 그 안에 있는 수은을 마시는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체온계 안의 수은은 약 0.8g 가량 되나 금속 수은이므로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 작은 외상을 입었을 때(출과상, 칼에 배인 상처, 못에 찔린 상처)

동작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아기 때는 넘어지고 굴러 떨어져서 생기는 상처, 칼에 배인 상처, 무엇에 찔린 상처 등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큰 작은 상처가 생기면 통증이 있고 출혈도 있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처치를 잘못하면 상처에 화농균이 침입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먼저 상처를 입은 부위에 휴지나 모래가 붙어 더러울 때는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 등으로 눌러 압박하면 대부분의 출혈은 멈춥니다. 만일 열이 나거나 상처가 몹시 무시고 통증을 느끼는 것같이 보이면 곪을 염려가 있으므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리조각 같은 이물이 상처 안에 박혀 있을 염려가 있을 때는 집에서 손대지 말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상처가 클 때는 깨끗한 거즈 같은 것으로 압박하고 붕대를 강하게 감아주어 출혈을 멈추게 하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못, 바늘 등 뾰족한 것에 피부가 찔려 상처가 났을 때에는 상처가 깊어 화농균이 깊이 침입하였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를 멈추게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상처부위를 눌러 피를 짜냅니다. 이것은 피로 균을 씻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상처를 욕시풀로 소독하고 거즈로 매어 줍니다. 그러나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 보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타박상을 입었을 때

밖으로 상처가 안보이고 피하조직에 장애를 받은 것을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서 타박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발의 가벼운 상처라면 걱정 없지만 가슴, 배를 부딪혔을 때는 때로는 뱃속의 내장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타박상을 입었을 때는 환부를 높게 하고 청결한 물이나 봉산수 등으로 차게 합니다. 붓거나 통증이 심할 때는 얼음찜질을 합니다. 며칠 지나 통증과 열이 없으면 뜨거운 찜질로 바꾸어 응어리를 풀어줍니다.

● 부러졌을 때(골절)

7-8개월 정도가 되면서부터는 기가 시작하여 분별없이 움직이게 되므로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일이 많게 되어 타박상을 입거나 골절 등의 사고와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잠시도 눈을 땔 수 없습니다. 사고 후 신체 일부분에 외상이 없어도 자극하면 아프고 변형이 되어 있거나 구부러지거나 걸기를 할 수 없게 되고 부어오르면 뼈가 부러진 것을 의심해 봅니다. 팔이나 발의 골절은 먼저 더 이상의 손상을 막기 위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부러진 부위가 발목이면 무릎까지, 정강이면 엉덩이까지, 넓적다리면 발에서 겨드랑이까지, 팔목이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팔이면 겨드랑이까지 부목을 대고 고정시키며 부목이 없으면 여러 겹의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 등으로 환부를 감아 고정시켜도 좋으며 부러진 팔은 몸통에 붙들어 매고 부러진 다리는 반대편 다리에 묶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 빠졌을 때

관절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거나 격한 운동으로 인해 빠지게 되는데 대개 무릎이나 발목, 팔목 등이 잘 빠지며 관절이 붓

고 아파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빠졌을 때는 빈 부위를 심장보다 더 높게 베개 위에 올려놓아 편하게 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부기가 있으면 얼음주머니를 30분 정도 댑니다. 빈 곳을 주무르거나 움직이면 오히려 악화되기 쉽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골절일 수도 있으므로 부목으로 고정시키고 병원을 데려 갑니다.

● 뼈가 빠졌을 때(탈구)

관절이 빠졌을 때보다도 더 센 힘이 가해질 때에는 관절이 빠져 탈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어른이 아기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기거나 넘어진 아기를 너무 세게 잡아 올렸을 때 탈구되는 수가 많습니다. 탈구가 되면 늘어져서 구부릴 수가 없고 움직이면 아파서 되도록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탈구했다고 생각될 때는 관절을 움직이지 않도록 골절 때와 같이 부목을 대고 뒹 수 있으면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한번 탈구가 되면 관절 주머니의 근육이 늘어나서 얼마동안은 또 탈구가 되기 쉬우므로 함부로 잡아 다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코피가 날 때

대개의 코피는 저절로 멈추나 코피가 날 때는 코의 혈관을 내리게 하는 일과 피를 삼키거나 피가 기도를 막지 않게 하기 위해 얼굴을 위로 향해 머리를 높이 듭니다. 옷을 풀고 엄지와 검지로 콧등 위쪽을 10-15분 정도 꼭 눌러주며 그래도 멎지 않으면 깨끗한 탈지면으로 콧구멍을 막아주고 4-5분간 안정을 취하면 대개 멈춥니다. 찬 타월로 코위에서 차게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 벌레

벌레가 들어갔다면 귀를 밝은 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손전등을 귀 가운데에 비추어 빛을 따라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담배 연기를 쐬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식용유나 알코올을 한 방울 귀속에 떨어 뜨려 벌레를 죽게 한 후 꺼냅니다.

○ 물

물이 들어갔을 때는 물이 들어 간 쪽의 귀가 밑으로 가도록 누고 따뜻한 물을 귀에 대고 있으면 물이 나옵니다. 또는 물이 들어간 쪽의 귀를 밑으로 하여 면봉으로 가볍게 수분을 흡수시키도록 합니다.

○ 기타이물

작은 콩이나 돌 같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귀이개를 귀의 벽에 따라 넣어 이물질의 뒤쪽에 대고 꺼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 간 경우에는 병원에 가보도록 합니다.

● 코에 이물이 들어갔을 때

콩이나 유리구슬, 작은 돌맹이 등 이물질이 콧구멍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의 한쪽을 누르고 코를 푸는 듯이 하여 빼내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여도 안될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에게 보입니다.

무리하게 빼내려고 하다보면 오히려 깊게 들어가 버려 코의 점막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기관에 들어갔을 때라도 작은 콩알 정도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정을 취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당황하여 거꾸로 세워 등

을 두드린다든지 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동물에 물렸을 때

동물에 물렸을 때는 이빨로 인한 상처 뿐 아니라 동물의 타액에 있는 세균이 물린 상처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린 곳을 즉시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소독을 한 다음 거즈 등을 대고 붓대를 감습니다. 상처가 작더라도 났을 수 있으면 빨리 의사선생님의 진찰을 받아 보도록 합니다.

○ 개

우선 물린 상처를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고 소독하도록 합니다. 물은 개를 쫓아거나 놓치지 말고 가두어 두고 미친개인지 관찰합니다. 미친개인 경우는 10일 이내에 죽게 됩니다. 미친개가 아닌 경우 큰 상처를 입지 않았을 때는 염려할 바는 아니나 심하게 물렸을 때, 미친개의 증세가 보인다면 도망갔을 때는 백신 주사를 맞는다든지 의사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 고양이

큰 상처가 아니면 별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 이후에 묘소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병은 국소적 림프절염, 발열, 몸살을 앓습니다. 상처자국을 소독하고 붓대를 감아주도록 합니다.

○ 쥐

귀에 물리게 되면 때로는 일정한 잠복기(약 3주) 뒤에 상처가 붓고 열이 나며 두통, 현기증, 전신권태 등의 증상이 있게 됩니다. 약 1주일 정도로 증상이 가볍게 계속되는 것이 반



어린이와
건강

복됩니다. 물렸을 때는 우선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고 그 뒤에 의사선생님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 전기에 감전되었을 때

손이 닿는 위치의 콘센트에 핀을 꽂는 등 지뽀족한 쇠붙이를 주셔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놀라서 우는 정도로 그치지만 쇼크로 의식불명이 되는 때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만일 쇼크로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는 인공호흡을 하면서 구급차를 부릅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물에 빠졌을 때

아기들이 담하는 물에 의한 사고는 설마하고 생각할 정도의 아주 적은 물에서도 일어납니다.

조금 남겨진 욕조물, 대야물, 세탁기에 남겨진 물, 집안의 작은 연못에서 일어나기 쉬우며 물에 의한 사고는 때때로 호흡정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엄마가 하여야 할 일은 인공호흡입니다. 물에서 건져냈을 때 만일 호흡이 중단되었다든지 가냘프게만 호흡을 하고 있을 때(가사상태)는 한시바빠 인공호흡 방법을

으로 숨을 쉬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인공호흡방법을 알아두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호흡법 먼저 아기의 목에 배개를 대 턱이 위로 들리도록 머리를 젖혀 기도를 확보합니다. 아기의 턱을 잡아당겨 입을 벌리고 코를 막은 후에 1분에 20회, 3초에 한번 정도로 숨을 불어넣어 줍니다. 인공호흡을 두 번 정도 한 다음에는 아기를 바닥에 눕히고 명치에서 약간 좌측을 두 손가락으로 1분에 100회 정도 힘껏 눌러줍니다.

불의의 사고 또는 우발사고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 숙명적인 일 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사실 잘 알아보면 이러한 사고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일로서 그것에 대해 대비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입니다. 부모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계몽과 교육을 통하여 학교에 갈 나이가 될 때까지는 어린이 자신이 자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켜 귀여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파루리원 의견 받습니다.

최근 보육시설에서 유행하고 있는 α회로를 통해 부모들이 직장서 인터넷으로 아이들의 하루일과와 노는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알고 계시죠. 찬반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유행하는구나, 정보화 사회 필수제, 부모한테는 좋겠네, 교사한테는 좀 아니겠 같은대응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기에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지면상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찬성의 의견과 반대의 의견, 중립적인 의견 모두 좋습니다. 다음 소식지에 모두의 의견을 실을 것을 약속하오니 활발한 의견제진을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천리안 KDTA, 팩스 2275-8506)



어린이와
건강

연령	운동기능의 발달	사고의 종류	예방대책
1세 미만	4개월 : 물건을 손으로 집으려 한다. 5개월 : 두 손으로 물건을 잘 쥐며 아무 것이나 입에 넣는다. 6-7개월 : 뒤집는다. 10개월 : 잡고 선다. 12개월 : 혼자선다	질식, 추락, 중독, 이물 흡입, 화상, 익사	- 너무 폭신한 베개나 요를 사용하지 않는다. - 침대 옆에 난간을 설치하며, 높은 곳에 혼자 두지 않는다 - 비닐 봉지, 끈이 뽀족하거나 조각나기 쉬운 장난감, 동전, 팝콘이나 콩 등을 치운다. - 물이 담긴 그릇, 뜨거운 음식, 전열기 등의 근처에 혼자 두지 않는다. - 자동차에 태울 때 유아용 안전의자를 사용한다. - 채토제를 상비약으로 준비해 둔다
1세	15개월 : 혼자 걷는다.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	중독, 추락, 익사, 교통 사고, 화상, 이물흡입, 질식, 외상	- 약품, 독성 물질, 동전, 핀, 구슬 등을 어린이가 닿지 못하는 곳으로 치운다. - 창문에는 창살을 설치하고 꼭 잠근다. - 실내에서 놀도록 하며, 실외로 나갈 경우 주의 깊게 관찰한다. -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나 프라이팬의 손잡이를 손에 닿지 않게 하고, 뜨거운 음식 그릇을 식탁 가장자리에 놓지 않는다. - 갑자기 떨어져 내릴 수 있는 장난감 상자를 치운다. - 자동차에 태울 때는 영아용 의자를 사용한다
2-3세	호기심이 많다. 계단을 오르내린다. 세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교통 사고, 추락, 익사, 화상, 중독, 외상	- 약품이나 세척제 같은 것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둔다. - 길에서 자동차를 주의하라고 가르친다. - 큰길로 굴러가는 공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가르친다. - 모든 화기는 잠가두고, 가스레인은 밸브까지 잠근다. - 과도, 전열 기구, 약품, 성냥, 동전, 핀, 구슬 등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 자동차에 태울 때는 어린이용 의자를 사용한다.
5-9세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교통 사고, 익사, 화상, 중독, 추락	-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친다. -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쓰도록 한다. - 교통 법규를 가르친다. - 자동차 안전 벨트 매는 법을 가르친다 - 수영을 가르친다. - 성냥 사용 방법을 가르친다.



〈아기 돼지 삼 형제〉와 〈아기 돼지 세 자매〉

오윤정 · 서울지부장

아기돼지 삼형제는 여러출판사에서 발간하고 각원에 한권쯤은 있을 듯하여 표지사진은 넣지 않습니다. 아기돼지 세자매는? 아래의 원고를 보시면 왜 암살었나 이해가 되실겁니다.

서점에 가서 무슨 책이 새로 나왔나, 이책 저 책을 꺼내보는데 〈아기 돼지 세 자매(파랑새어린이출판사)〉라는 그림책이 눈에 띄었어요. '아기 돼지 삼 형제가 아니라 세 자매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한 탓에 빠르게 그 책을 넘겨보았어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책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정말 웃긴 이야기다.'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런데.....'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기 돼지 삼 형제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지요?"라고 묻는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옛이야기 〈아기 돼지 삼형제〉를 패러디한 그림책입니다. 주인공 돼지들의 성은 여성이고, 이야기의 몇가지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또 원래의 옛이야기와 패러디한 이야기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궁금했고, 패러디한 이야기의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은 몇 살 정도의 아이일까? 혹시 유아에게는 맞지 않는 그림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더 따져보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제가 가진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았으면 합니다.

궁금증 해결의 실마리를 제가 참가하고 있는 옛이야기 모임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서울지부 북부지회 선생님들과 열흘에 한 번씩 만나 옛이야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모임은 10명의 교사로 10번 진행했는데, 그 중 다섯명이 다시 모여 옛이야기 공부를 좀더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부하는 책은 베텔하임의 "옛이야기의 매력(시공사)"입니다. 옛이야기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한 책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모임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를 공부했거든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 형제〉는 베텔하임이 원본이라고 인용하고 있는 〈아기돼

지 삼형제〉와 달랐습니다. 몇가지 이야기하자면 늑대를 물리친 돼지는 가장 나이 많은 첫째 돼지이고, 나머지 두 돼지는 늑대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 많은 첫째돼지는 늑대의 세가지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마지막에 늑대를 잡아먹습니다. 가장 원본에 가깝다는 번역본으로는 그림책으로 웅진출판사의 〈아기 돼지 삼형제〉를 꼽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늑대를 잡아먹은 것은 셋째 돼지로 되어있는 중대한 실수를 했더군요.(글로는 첫째 둘째 셋째가 우리가 흔히 쓰는 연령에 따른 서열인지, 그냥 순서만을 이야기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책제목이 삼형제니까 셋째라 하면 막내로 생각하기 쉽지요. 특히 그림으로 첫째 둘째 셋째 돼지의 모습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웅진 출판사의 책도 이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왜 중대한 실수인지는 베텔하임의 글을 인용하면서 밝히도록 하지요.

베텔하임은 옛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옛이야기는 아이들의 정신적 성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아이의 정신세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욕망과 혼돈과 불안에 시달리며, 각 성장단계에 따르는 수많은 존재론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성숙한 인격을 형성할 수 없다. 옛이야기는 무의식적 또는 전의식적 차원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옛이야기는 교훈적인 이야기나 현대 창작 동화나 위인전 심지어는 신화나 우화보다도 훨씬 더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옛이야기의 매력에서 〈아기 돼지 삼 형제〉를 해석한 것을 살펴보면 앞에 이야기한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 형제〉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 우선

계으르거나 모든 일을 대강대강 하면 나중에 고생하게 된다는 것을, 가장 즐겁고 극적인 형태로 가르친다. 또 근면과 지성, 그리고 앞일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우리를 가장 잔인한 적(늑대)까지도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가르친다. 끝으로 가장 크고 나이 많은 세 번째 아기 돼지를 가장 영리하게 설정해서 성장의 이로움을 알려준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만든 초가집, 나무집, 단단한 벽돌집은 인간의 성장을 상징한다. 가장 어린 돼지와 둘째 돼지는 가능한 빨리 집을 만들고 남은 시간 놀 수 있다. 이처럼 어린 돼지들은 쾌락 원칙에 따라, 미래나 현실의 위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가장 나이 많은 세 번째 돼지만이 현실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는 놀고 싶은 욕망을 하고 그 대신에 앞일을 예견하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세 번째 돼지는 자기보다 더 강하고 거칠고 파괴적인 늑대를 물리칠 수 있다.

우리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언급할 때 나이든 돼지가 영리한 꾀로 늑대를 속이면서 음식을 얻는 과정들을 쉽게 무시하는데 이 이야기는 중요한 부분이다. 아이는 결과를 무시하고 한꺼번에 먹어치우려는 무절제한 쾌락 원칙과 지적으로 음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현실 원칙 사이의 차이를 잠재적으로 이해한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가장 어린 인물들이 승리한다는 다른 이야기의 유형과는 다른데, 이 이야기는 모든 세 마리가 돼지들이 아이들 자신처럼 작고 미숙하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아이는 그들과 차례로 동일시하고, 자아의 발달을 깨닫는다.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늑대가 웅분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이 〈아기 돼지 삼형제〉를 옛이야기로 만든다.

아이들의 정의감은 늑대의 처벌로 인해 충족되며, 세 마리 아기 돼지들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보여주기에 처음 두 마리 아기 돼지들의 사라짐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다.]

인용이 길어졌습니다. 결국, 〈아기돼지 삼 형제〉는 아이들이 성장에 대한 믿음을 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직접적인 교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무의식에 작용한다고 베텔하임은 주장하고 있으며, 저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텔하임은 개작에 대해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작은 그 이야기

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돼지 세 자매〉를 살펴볼까요? 우선 아기 돼지 세 자매는 결혼할 나이가 되어 상대를 찾아 나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째는 돈을 다 들여 커다란 벽돌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돼지 가면을 쓴 늑대신랑감의 꼬임에 넘어가 잡아먹혀 버립니다. 물론 둘째 돼지도 마찬가지로 늑대 가면은 돼지가 그 늑대를 속입니다. 늑대를 잡은 셋째 돼지의 지루하기 집으로 신랑감들이 훔쳐 서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돼지의 귀여운 모습, 장면의 전환 등 잘 그려진 그림책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웅진출판사의 그림보다는 훨씬 잘 그린 그림책입니다. 여자 돼지가 등장함으로써 주는 페러디의 맛도 있습니다. 읽다보면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연약한 여자가 그 무서운 늑대를 잡았고, 그래서 그 돼지는 신랑감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그림책을 볼 때와 원전의 〈아기 돼지 삼형제〉를 들고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 듯하지만 아주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전을 손상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화영화를 통해 본 혹은 마구 번역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원전을 손상시켰으며, 이야기의 의미를 없애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옛이야기를 대할 때 좀더 신중해야 하며, 이런 페러디 동화를 아이들 손에 쥐어줄 때 또한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은 옛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아기 돼지 세 자매〉 이야기가 유아에게 맞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를 읽은 아이는 〈아기 돼지 세 자매〉 이야기를 듣고 통쾌하게 웃을 수 있고 그러려면 세 자매를 읽고 자기의 생각을 토론했을 수 있는 나이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기돼지 세자매〉 이야기만 읽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세 자매 이야기의 재미는 반으로 줄겠지요.

‘아이사랑’에 대한 나의 고백

주예민

서울, 씹씹이어린이집 교사

얼마 전 시댁에 갔다.

하루 쉬는 날 뽀뽀하게 예천을 다녀 왔다. 가서 봄기운에 풀린 땅을 밟았다. 아주 오랜만에 고추밭에 비닐 씹우는 일을 도우러 밭에 갔었는데 자그맣고 마른 몸으로 삼질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속에서 땅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쉬워 보여 내가 하겠노라며 삼을 들고 해보니 반고랑도 못되 허리며, 다리가 아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결국 비닐을 잡아주는 일만 하게 되었다. 작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이렇게 시간과 노동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작은 열매도 그럴 진데 사람 키우는 일이 이보다 못해서야 될까? 나의 마음 한구석으로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나를 못살게 했던 한달 전일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그 일은 내게 큰 후유증을 안겨주었다.

그날은....

아이들이 교사방 창문으로 놀란 토끼 눈을 하며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이모들은 아이들을 그곳에서 떼어내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교사방에서 멀리 아이들을 떼어놓으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의 엄마가 와서 이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하고 있으니 아이들로선 궁금하기 이를 때 없었을 것이며 내심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날 아침 그 아이의 엄마는 나에게 조금의 예의도 차리지 않고 퍼붓고 나갔다. 하루종일 그 일로 우울했다. 그건 속상한 거와는 사뭇 다른 감정이었다. 그 아이가 씹씹이에 오게 된 것은 딱 한달 전으로 애초부터 한달만 다니기로 하고 씹씹이에 오게된 아이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간호를 해야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닐 수 없으니 한달만 맡아달라며 사정을 했기에 그 아이를 한달 동안 보기로 한 것이다.(씹씹이는 일시보육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어쨌든 그 자체부터가 문제였는지 모른다. 그렇게 아이를 받았을 때 오는 여러가지 문제를 그 엄마에게 설명을 했었고....그럼에도 아이를 맡아달라는 엄마의 사정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와 함께 내부에선 어려운 재정사정이 이를 힘있게 거절하지 못하게 한 이유도 있었다. 아이는 거칠었다. 자활 삼촌 이모들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건 예사며 물고, 물건을 던졌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며칠이 지나자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애정을 갖기보다는 빨리 한달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컸던 게 사실이다. 아이의 행동을 엄마가 모르는 건 아니었다. 상담할 때부터 아이의 산만함과 어수선했음으로 인해 지쳐있었으며 그런 사실을 내게 숨김없이 쉽게 이야기를 했었다. 친해진 엄마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의 문제에 대해 아이의 엄마에게 거의 매일 말을 했었다. 엄마는 몹시 기분이 상했었고 그기분은 마지막날 폭발하게 된 것이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애정 없는 교사에게 더 문제가 있다며 거의 막말로 싸움을 걸어왔던 것이다.

아주 솔직한 심정은 비참하다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를 대하면서 정말 무심하게 잊혀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드러났다. 그저 맑은 물처럼 느껴졌던 나의 활동이 무언가에 의해 휘젓고 나면 떠오르는 침전물처럼 뿌옇게 소용돌이 치며 늘어났던 것이다. 언제나 흐르는 새물이 아니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치부였다. 늘 아이들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다고 철칙 같이 믿어 의심치 않은 나의 게으름이 그대로 드러나고 만 것이었다. 그 아이를 대하면서도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 버린 나의 나태함이 이런 일을 초래했던 것이다. 애정 어린 관계는 참으로 부지런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했던 그 아이와 그 엄마에게 한편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따뜻함과 진정한 애정이 결여된 활동에 대한 질책에 대해 말이다. 그것이 불쾌한 감정에 의해 퍼부은 말일지라도 나의 활동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 처음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말이다.

날이 어둑어둑해야 고추밭일을 끝내고 논길을 걸어왔다.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하늘거렸다. 정성이 깃들이 않으면 작은 들꽃도 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서라도 알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활동속에서 오랫동안 가라앉아 찌꺼기를 퍼내는 일일 것이다. 아이와 함께 하는 교사로서 아이에 대한 애정을 늘 새롭게 만들어 가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이 5월에 다시 생각해본다.



아현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 이야기 하나-핑계1

장난감 정리시간...

교사: 애들아 장난감 치우자

신비(36개월): (손가락으로 배를 꺾꺾 누르며)여기가 아파서 못해요.

● 핑계2

또 정리시간..

교사: 장난감을 치우자!

신비: (열반 아이를 할켜서 손바닥에 땀을 한대 맞았음)

손이 아파서 못해요.

● 핑계3

아이들과 장난감을 치우고 있는데 형민이가 기운이 없다.

교사: 형민아 어디 아프나?

형민: (기운 없이 고개만 끄덕임)

교사: 그럼 저기 매트에 가서 잠깐 쉬고 있어.

신비: (매트에 가 앉으며)나도 좀 쉴래, 앉아있을래

교사: (뭘 한게 있어야 쉬지!)

● 이야기 둘-애와 달이 된 오누이 99년도 버전

한 선생님이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애와 달이 된 오누이를 들려주고 있었다.

교사: (긴박한 목소리로) 호랑이가 도끼를 가지고 와서 나무를 툭툭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무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빠하고 동생은 하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시려거든 새둥아줄을"

때오(36개월): 선생님! 119에 전화하면 되잖아요. 119에 전화해요!

교사: !!!!

● 이야기 셋-국제화 시대

신비: 선생님 물 주세요.

교사: (시계를 보고)간식시간이네. 신비야 지금 우유 먹을 시간인데 물대신 그냥 우유 먹으면 안될까?

신비: 우유? 오 마이자! 우유? 오 노우!

● 이야기 넷-비를 그치게 하는 방법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고 있었다.

승현: 선생님! 선생님!(아주 큰 일이 난듯) 비가 많이 와요.

교사: 그래 비가 많이 오는구나.

승현: 선생님, 비가 아주 많이 와요. 비가 마야

니 와요. 잠깐 주세요.

교사:

● 이야기 다섯-나도

생일잔치가 끝나고 케익을 먹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케익을 떠서 아이들 입에 넣어 주는 데 태준이가 큰 조각을 받아 먹느라 입을 힘들게 벌린다.

교사: 어머 케익이 너무 큰 가보구나. 태준이 입 좀 봐!

정민(32개월): 정민이도 입 커요.

● 이야기 여섯-새로운 노선

정민: 아빠랑, 엄마랑 고속버스 타고 갔어!

교사: 고속버스 타고 어디 갔는데?

정민: 전철역!!

● 이야기 일곱-사진 찍음

유진이가 친구들과 싸워서 야단을 치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정민이,

정민: 선생님 말 잘 들을 테니까 엄마한테 '박정민 착해요' 그래

● 이야기 여덟-선생님은 라이벌?

선생님 한 분이 출산 휴가를 다녀왔다.

민지(만3세): 최주연 선생님! 선생님 얘기 있어요?

최선생님: 없는데...

민지: 왜 없어요?

최선생님: 음, 아직 결혼을 안했으니까.(아픈대를 질러서 당황하기 시작)

민지: 왜 결혼을 안했어요?

최선생님: (당황한 나머지 솔직히 대답)돈이 없어서...

민지: 동훈이요? 동훈이 여기 있는데요?

(민지는 평소 동훈이를 좋아해서 동훈이와 결혼하겠다고 말해왔다)

● 이야기 아홉-결혼이란?

한솔이는 평소 신비와 결혼하겠다고 말해왔다.

교사: 한솔아, 신비랑 결혼할거야?

한솔: 응!

교사: 결혼이 뭐데?

한솔: 생일 축하!!

사이버 정보망

어린이들의 수많은 언어: 레지오에밀리아 유아교육

김지의 · 서울남부지회

1992년 12월호 뉴스위크지에서 최고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격찬받은 이탈리아의 레지오에밀리아에서 운영하는 보육 프로그램! 40년의 역사와 수천년에 걸친 이탈리아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 유아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분들, 많으시겠죠?

어느날 '어린이들의 수많은 언어: 레지오에밀리아 유아교육'이라는 노란책에 반해버린 박성철씨의 개인 홈페이지인 이곳엔 레지오에밀리아에 대한 자료가 가득합니다.

원색적(?)인 화면으로 시선을 끄는 이 홈페이지의 왼쪽 삼단부엔 레지오에밀리아에 영향을 준 로리스말라구찌, 피아제, 비고스키, 프로젝트접근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레지오에밀리아 소개 및 개념, 배움 점들?, 역사/사상/철학, 발전적 교육과정, 페다고지스타, 교육 공간, 교사의 역할, 미국적 해석, 기록의 중요성, 창조성 강조, 프로젝트접근법, 몇마디 조언, 유용한 아이디어, 개념 및 전망, 보물 창고 등등... 굉장하죠?

하지만 이 멋진 자료들을 읽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딱딱딱딱 붙어있는 글자들, 게다가 이론적으로 치우친 기분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는 내용과 박성철씨의 노력이 잘 배어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럼 열심히 구경하세요. 중당, 어푸어푸!

찾아가시는 방법 - <http://user.chollian.net/~toefl660/>

어린이집을 다시 시작하며

장정숙 · 부산, 칙칙폭폭 어린이집 원장

우리네 아이들에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진해서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아마 할 말이 많은가보다.

그건 속으로 곱씹고 있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아련한 희망이 화답해 오기를 기대하는 내 마음 때문이라.

칙칙폭폭 놀이방은 부산 가야동에 비영리로 운영되던 보육시설이었다. 월세 20만 원을 내고 나면 교사의 월급은 자연히 미루어지는 가난한 재정과 겨울이면 가스렌즈에 물을 데워 세안과 양치를 하는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이었더라. 우리 교사들은 그래도 행복했지만 (정말로!) 아이들에게는 미안했었다. 95, 96년 우리 지탁원은 보육의 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보육의 질이 환경의 질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없었다.

96년 1월, 우리는 칙칙폭폭 어린이집을 폐원했었다. 그때 나는 서른 둘이었고 지금의 나는 서른 다섯이다. 그때 나는 칙칙폭폭 놀이방 교사였고, 지금의 나는 칙칙폭폭 어린이집 시설장이다. 3년동안 나는 힘겹게 내 삶을 운영해야 했고 보육교사의 길을 벗어나 한눈도 팔았으며 결혼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 흔들려하다 다시 이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어린이집 샘이다.

1999년 지금의 나는 결혼자금과 대출금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했다. 솔한 어린이집 명칭이 입과 수첩에 오르내리다 결국 칙칙폭폭 어린이집으로 간판을 내걸었고 지금은 결혼하여 인천에 있는 칙칙폭폭 놀이방 교사였던 샘께 “샘, 우리 어린이집 칙칙폭폭이야”라고 전화를 했었다.

오늘은 3월 26일 금요일.

부산은 처적처적 을씨년스럽게 봄비가 내렸다. 4세 진희와 혁진이, 7세 태진이가 돌아간 오후 3시경, 우리는 (교사 2인, 주방 1인) 탁자에 앉아 차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칙칙폭폭어린이집은 두면이 통유리라서 분위기 나게 커피를 즐기는 행복이 있다)

그때 뻐떡거리며 문이 열리고 각자 아기를 업고, 각자 아이를 앞세운 엄마 2명이 어린이집으로 들어왔다.

“여기 2층에 공부하는데 있어요?” (우리어린이집 건물은 5층, 우리는 1층)

“태진이 여기 다닌다던데, 태진이 없네”

각기 한마디씩.

“여기는 어린이집인데...태진이가 여기 다니나?” 밀도 끝도 없다.

그러나 나는 술하게 답하는 일이라 벌써 알만하다.

“태진이는 반일반입니다. 집에 갔어요. 아이 보내시게요?”

나란히 이웃이고 나란히 6세란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볼품장과 2층 침대 같은 미끄럼틀을 바라보고 서 있다. 엄마들은 7세 태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태진이 엄마가 이해 안된다는 듯 계속 의문을 제시하고, 나는 엄마들은 무례함에 화가 난다.

“학원 보내시게요? 근처에 학원 많습니다. 알아보세요”

창밖으로 문앞에 서서 한참을 이야기 나누는 엄마들이 보인다. 보조교사로 주방과 가사를 담당하는 기혼 동생은 (5세아가 있음) “나는 엄마를 마음 다 이해한다. 니 공부시켜 준다고 해라. 35만원 어팔래? 월급은?”

(문자, 숫자 중심의 인지교육은 아닙니다. 다양한 놀이와 탐구생활로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며,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남을 소중히 여기며, 더불어 사는 행복을 배워 나갑니다.)

우리 어린이집 소개문은, 교육내용은, 늘 던져지기 일쑤이다.

“글자 가르쳐줘요?” “공부해요?” “얼마예요?”

우리 어린이집이 위치하는 지역은 보기와 달리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다. 영세민과 편부, 편모가정이 많으며 어린이집 신설을 구에서 권장할 정도로 보육수요가 많은 곳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어린이집보다 학원을 선호하고, 학원으로 학원으로 보낸다. (우리 샘 후배가 있는 우리어린이집 근처 미술학원에서는 우리 샘 후배 혼자 5세아동 60명을 본단다)

못 배워서 가난하고 못 배워서 멀리 당하고 그래서 내자식만은 잘 가르쳐야지.

물론이다. 나도 그렇다.

있는 집에서 잘 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보다 없는 집에서 못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공부 잘하고 더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

나는 이번달 월세를 빌려야 할 것 같다. 통장에 잔고도 바닥이다.

사람들의 ‘이 IMF에 웬 어린이집?’ 우려가 맞아질 것도 같다.

이러다가 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포기하면서, 적당히 살아질까 무섭다.

p.s 새로운 거 하나 없는 낯두리 글입니다. 꼭 실어야 한다는 부담감 갖지않아도 되고요.

안보외 중앙 간부님들 오랜만에요. 건강하시죠?

힘든 시기 마음만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베를린 리포터

-베를린보육시설과 교육기관 탐방기

김영명 · 인천, 종달새어린이집 원장

얼마전 나주로 시집간 이선주연구원으로 부터 연구소가 진행하는 컴퓨터 통신망의 보육교사한마당에 들어가 보라고 하며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군요. 김영명선생님의 베를린교육현장에 대한 리포트가 담겨있었습니다. 김영명선생님은 지난 97년 4월~7월 까지 6살자녀와 함께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교육현장을 탐방하였답니다. 시일이 지나긴 하였지만 보육교사들과 나누고 싶어 보육교사한마당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생생한 탐방기가 주는 참신함으로 본지 독자들에게도 나누고파 선생님께 본지 기사를 의뢰하여 실게 되었습니다. 몇차례 테이핑으로 연재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생생한 교육의 현장: 박물관

다음은 1997년 4월부터 7월까지 독일의 베를린에서 보육시설을 참관하면서 기록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베를린은 분단 이전에 독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독일의 도시 중에서도 박물관이 많은 도시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지방의 소도시에도 가더라도 그 지방의 특성을 살린 박물관이 잘 꾸며져 있으며, 독일 전역에 걸쳐 주립박물관, 시립박물관, 향토박물관, 개인박물관, 공전박물관 등 다양한 종류의 박물관이 3천여 개나 있다(이관우, 1997).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200여개(1997)의 박물관이 있다.

킨더라덴(놀이방 규모로 우리나라의 공동육아를 하는 곳과 비슷한 점이 많은 보육시설이다)에 있을 때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의 박물관 섬에 있는 배 박물관을 견학했다. 박물관 섬(Museuminsel)은 슈프레 강에 떠있는 섬으로 페르가몬 박물관, 보데 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박물관 등과 같이 유명한 박물관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박물관에 갈 때는 버스를 2번 탄 뒤에도 10분 정도를 걸었고, 올 때는 한참을 걸다가 전철을 탄 뒤

버스를 타고 왔다. 가는 시간이 한 시간은 걸렸다. 선생님들은 박물관에 들어서면서 조용히 하도록 주의를 주었고 아이들도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서 조용히 박물관을 견학했다. 킨더라덴에서는 무척이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아이들이 공공시설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얹전해졌다. 박물관에서 안내를 맡은 직원들도 전시물이 손상될까봐 무척이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배를 그린 그림과 모형 등 전시물을 대충 둘러보고 나서 어린이를 위해 꾸며놓은 방에 들었다. 그곳은 배의 실내처럼 꾸며놓았고, 모형 배와 배에서 잠을 자던 침구, 나침반, 지구본, 해양지도, 저울, 커다란 소라 등



옛날에 배에서 쓰던 물건들이 갖추어져 있다. 아이들은 한 번씩 커다란 사각통으로 만들어져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배에서 쓰던 침구에 들어가서 누워보았고 소라에 귀를 귀울여 보았다.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저울이나 지구본과 같은 전시물을 만져보았다. 아이들을 위한 전시실을 특별히 배려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 곳에서 초등학교로 보이는 아이들은 준비해온 크레파스로 책을 보면서 배를 그리고 있었다. 전시물을 구경하고 나서 그리는 그림이라 그리는 아이들의 느낌도 다르리라 생각되었다.

일요일에는 자연사박물관 (Museum für Naturkunde Berlin)에 갔었는데 그 곳에는 공룡의 화석과 뼈가 있으며, 여러 가지 동물이 박제된 상태로 전시되어 있었다. 사람이 오랫동안 키웠던 고릴라 보비도 박제되어 있으며, 보비에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자료는 관람객이 보기 좋게 지도나 설명이 곁들여져 있으며, 어린이들이 좋아하도록 박제 동물들을 자연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꾸며서 전시해 놓았다. 여러 가지 동물과 공룡, 고릴라 등 아이들이 볼만한 전시물이 가득차 있는 자연사 박물관은 킨더가르텐에서 자주 찾는 박물관이다.

아이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또 하나 교통과 기술 박물관(Museum für Verkehr und Technik)을 들 수 있다. 그 곳에는 기차, 비행기, 직조기, 풍차방앗간, 물레방앗간, 주형, 모자, 재봉틀 등이 다양한 기계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전시물들은 관람객이나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많은 모형이나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특히 기차의 발달과정을 실물기차를 1800년대부터 연대 별로 전시해 놓아서 볼 만했으며, 기차를 밑에서도 볼 수 있도록 기차 밑의 땅을 파서 전시했다. 풍차방앗간에서는 직접 곡물을 갈아보도록 하였으며, 직물을 짜는 기계 앞에서는 직물을 조금 잘라주었다. 이 모든 것이 관람객, 특히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여겨졌다.

시립킨더가르텐에 있을 때 교사인 마리의온의 그릇 아이들과 함께 일반적인 박물관이

나 미술관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퓨제뮤지엄(인형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다. 인형박물관은 지하철을 타고가며 킨더가르텐에서 40분 정도의 거리인 칼막스트라세(Karl-Marx-Strasse)에 있다. 작은 규모로 다양한 인형이 전시되어 있고 입장료는 단체인 경우 3마르크(1600원 정도)이다.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전시된 인형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인형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면서 보여주기도 하였다. 인형극을 할 때 인형을 어떻게 조작하는가 보여주기도 하며 인형의 재료와 인형극에 쓰는 인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실물을 보면서 설명해주었다. 전시물을 관람하는 것이 끝나자 간단한 인형극을 보여주었는데 아이들은 흥미있게 지켜보았다. 소규모이지만 아이들의 관심이 많은 인형극 소재로 한 박물관이라는 점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아이들이 인형극을 많이 보지만 인형자체에 대한 인식을 갖기는 어려운데 인형박물관 견학을 통해서 인형극이 그냥 주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형과 인형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정을 인식하는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싹트는 것이 아닐까. 이 외에도 베를린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달렘박물관, 민속박물관 등이 있으며, 악기박물관, 책박물관, 인형박물관, 비누박물관 등 다양한 주제에 따라 전시물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있다. 이전에는 입장료가 무료인 곳이 많았는데 요즘은 재정사정이 안좋아져서 유료로 바뀐 곳도 많아졌다고 한다. 킨더라덴과 같이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전체가 함께 박물관 등을 견학하지만 규모가 큰 킨더가르텐에서는 숲이나 공원, 연극, 음악회, 박물관 등에 가는 견학활동이 각 반마다 다르게 진행되며, 부모회의에서 부모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도 한다.

수많은 박물관을 가지고 있고,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아낌없이 활용하고 있는 베를린의 킨더가르텐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느낀점 중의 하나는 독일 사람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정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앞만 보고

앞에 있는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과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면서 방향을 잡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첨단이나 새로운 어떠한 것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은 아무래도 뒷전에 밀려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추진력이라면 과거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은 움직임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많은 미래의 일들의 결론은 과거사 속에도 충분히 들어있기에 새로운 일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는 마냥 법석대기보다는 진지한 무게를 실는 결정을 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도 새로운 것, 첨단의 것 중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사고하는 힘이 길러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박물관이라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현장에서의 교육을 통해 이러한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곳에서 박물관을 가보면서 느낀 것 중의 또 하나는 사회가 자신의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해서 쓰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점에 대해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이 높은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며, 가정마다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규모도 엄청난 액수다. 그러나 한 개인이 자신의 자녀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잘 꾸며진 박물관을 여러 개 가질 수는



없으며, 늘 교육의 산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박물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개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주는 수많은 책이나 교실에서 교육보다

몇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박물관을 자주 견학하는 효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역사와 문화의 유산을 모아놓은 박물관을 견학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는 점이다. 창의성의 개발은 교실에 앉아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다양한 문화 유산들을 직접 보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함께 사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사고할 수 있을 때 아동들의 사고도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고, 창의성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80년대 이후 많은 박물관이 생겨났지만 아직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는 미진한 감이 있다. 이는 교사대 아동비가 높아 인솔이 어렵다는 점과 거리가 너무 복잡하고 교통사정이 안좋아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또한 박물관이 많이 생기는 했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고,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은 많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에 박물관 활용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박물관을 통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음껏 뛰어놀며 자라는 아이들 : 놀이터

베를린에는 놀이터가 무척 많은데 놀이터마다 놀이시설이 다양하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좁은 공간 일지라도 녹지가 있으면 그 곳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들이 서너 개는 마련되어 있다. 킨더라덴에서 2주 동안 매번 다른 놀이터에 갔을 정도로 베를린 시에는 곳곳에 놀이터가 있으며, 내가 머물던 동네에서도 쉽게 몇 개의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놀이터 중에는 2차대전 때 폭격 맞은 건물을 복원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놀이터를 만든 것도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놀이터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역시 다양한 놀이시설이나 벤치가 놓여져 있고, 옆에는 벽면을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폭격 맞은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놀이터에는 넓은 모래밭과 나무로 만든 다양한 놀이시설이 아이들이 놀기 좋게 만

들어져 있다. 놀이터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집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재미있다. 어떤 놀이터에는 나무로 만든 세모난 작은 집과 나무로 만든 기차가 있어 인상적이었는데, 기차 안에는 원탁이 아이들이 놀기 좋도록 꾸며져있다. 또 어떤 놀이터에는 배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놀이기구가 있어서 색달랐다. 놀이터마다 놀이시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면 무엇이나 똑같은 것을 싫어한다는 독일 사람들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많고, 나무로 만든 복합놀이시설이 많은 것도 좋아보였는데, 독일에도 이전에는 그네나 미끄럼틀과 같이 단일한 놀이시설이 많았으나 유아들의 신체발달을 고려한 복합놀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론이 대두되면서 복합놀이 시설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킨더라덴(놀이방 규모로 부모들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의 아이들은 킨더라덴 자체에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전에



는 놀 주변에 있는 놀이터나 동물원, 숲 등을 찾으며, 자체에 놀이터가 있는 킨더가르텐의 경우 킨더라덴 보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킨더가르텐 외부에 있는 놀이터나 숲에 간다.

킨더라덴에 있을 때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나서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 갔다. 놀이터에 갈 때는 과일이나 차 등 오전 간식을 싸가지고 나가서 놀다가 배가 고프면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간식을 먹으며 오전 내내 충분히 놀다 점심때가 되면 킨더라덴으로 돌아온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한참을 놀고 교사인 마티나와 스테판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아이들을 도와주었다. 놀이터에 놀러나갔을 때나 체육관에 갔을 때 교사들은 자주 교사들끼리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들과 노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교사들은 가장 나이가 어린 3살 정도의 어린 아이를 도와 주거나, 아이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개입하는 정도다. 마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나간 것같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킨더라덴의 아이들은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놀기도 하는데 놀이터 주변이 대개 녹지이므로 아이들은 곧잘 놀이터에서 놀다가 나무를 타면서 논다. 어떤 아이들은 쓰러진 나무를 끌고 다니기도 하는데, 쓰러진 나뭇가지가 너무 커서 아이들이 옮기기가 힘들자 마티나는 아이들을 도와주었다. 쓰러진 커다란 나무를 들어내자 거기에는 새둥지가 있었고,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좋아했다. 어떤 아이는 나뭇가지를 모래에 꽂아 놓고 나무 밑을 나뭇잎으로 장식하며 노는데 큰 가지를 꺾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만 작은 꽃이나 잎사귀를 뜯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마티나는 항상 조금 큰 유리 항아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는데, 그 안에는 벌레와 나무 잎사귀가 들

어 있어서 다른 아이들도 호기심에 찬 눈으로 항아리 안을 들여다 본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시립 킨더가르텐에 있을 때는 베를린에 있는 큰 숲인 티어가르텐에 있는 놀이터에 버스를 타고 가서 놀았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굉장히 잘 논다. 가끔씩 나가기 때문에 내 기분도 마치 소풍가는 것과 같이 들뜬 기분으로 다녀왔다. 티어가르텐에는 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간 곳도 숲을 조금만 들어가면 있는 곳으로 놀이 시설이 아주 좋았다. 이 도시의 대부분이 광지이고, 숲 또한 광지이기 때문에 놀이터를 조성하기가 좋은 것 같다. 아이들은 쾌적한 숲속의 놀이터에서 한참을 뛰어놀다 돌아왔다. 교사 마티나는 어린 제시카를 신경 써서 돌봐줄 뿐 벤치에 앉아서 동료교사인 실비아, 그리고 나와 함께 많은 얘기를 했다. 다른 킨더가르텐이나 킨더라덴에서도 많이들 놀러나왔다.

킨더라덴에는 자체에 놀이터가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킨더가르텐에는 자체에 크고 작은 놀이터를 갖추고 있다. 신체활동과 놀이활동을 중시하는 독일 교육의 특징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베를린공대 부설 킨더카르텐의 놀이터는 킨더가르텐 건물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 저곳을 아이들이 재미있고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정원처럼 꾸며놓았다. 놀이터의 한 쪽에는 나무로 만든 집과 흔들다리 그리고 미끄럼틀이 연결되어 있는 놀이 시설이 있으며, 놀이터의 입구에는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다. 또 두개의 쇠기둥 사이에 천을 매어 놓아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 그네를 타듯이 놀게 되어 있는 놀이시설도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신나게 탄다. 나무로 만든 창고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삽이나 플라스틱 양동이, 장난감 포크레인 등이 충분히 들어 있다. 놀이터의 가운데는 평평한 땅에 잔디가 심어져 있고 그

주위는 뱀같이 긴 동물모양을 한 계단이 있어서 아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놀이터의 가장자리는 나무로 둘러쳐져 있으며 놀이터의 내부는 언덕과 같이 굴곡이 있게 꾸며져 있어서 마치 정원을 연상하게끔 되어있다.

특징적인 것은 모래놀이를 할 때 항상 물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모래놀이터에 물이 나오는 시설을 함께 마련해 놓았다는 점이다. 놀이터 안에 두 곳의 모래놀이터가 있는데 한 곳은 동물모양으로 둘러싸고 그 안에 모래를 넣어 놓았고, 모래놀이터의 둘레를 친 아기고래같은 데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 다른 한 곳은 작은 계곡을 연상할 수 있도록 물이 쏟아져 있는 곳의 아래쪽에 모래가 있는데, 작은 계곡 근처에 펌프가 마련되어 있다. 아이들은 펌프에서 물을 길어와 조그마한 계곡 위에서 물을 부은 다음, 계곡 아래에서 삽으로 모래를 꾸면서 놀았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신나게 모래와 물을 가지고 논다. 베를린에 와서 많은 놀이터를 가보았으나 이렇게 조목조목 잘 꾸며져 있는 놀이터는 처음이다. 킨더가르텐의 주된 프로그램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므로 놀이터는 그만큼 중요할 것이다.

시립 킨더가르텐의 놀이터는 아주 넓으며, 역시 커다란 모래밭과 다양한 놀이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특징적인 것은 각각의 보육실과 놀이터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자유놀이 시간에 항상 놀이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햇빛이 뜨거운 여름날, 아이들은 벌거벗거나 팬티만 입고 나와 물과 모래를 가지고 논다. 교사들은 미끄럼틀에 호스로 물을 뿌려주고 아이들은 더위도 잊은 채 물미끄럼틀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한 쪽에서는 물을 담은 비닐 풍을 여러 곳에 마련해 놓고 아이들이 비닐 풍에서 놀도록 하는데, 넓은 놀이터에서 더위를 잊고 마음껏 노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신이 났다.

자유대학 부설 킨더가르텐의 놀이터는 아름다운 나무가 족족 뻗어 있어 마치 숲속에

자리를 잡은 것과 같은 인상을 주며, 다양한 놀이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 곳은 바깥 놀이터도 넓지만 실내에 신체활동 공간이 여러 개 있는데, 신체활동 공간은 아이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넓으며 매트와 나무로 만들어진 신체활동 기구, 커다란 공 등 다양한 기구가 비치되어 있다. 아이들은 공간의 이동이 항상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라도 신체활동 공간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다.

베를린의 킨더가르텐에 놀이터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은 킨더가르텐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 중에 1/2 내지 2/3가 자유놀이나 신체활동이며, 유아기에 신체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육 프로그램의 특징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의 어떤 시설 못지 않게 잘 꾸며진 놀이터를 마련해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물론 내가 가본 킨더가르텐의 놀이터는 베를린에서도 잘 꾸며지고 넓은 편에 속하지만 수많은 공원과 넓고 잘 꾸며진 놀이터를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참 많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린시절을 햇볕 속에서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갖춘 베를린의 보육시설을 보면서 제대로 바깥 놀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 보육시설이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팠다. 또한 개별 부모나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들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사회전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실감했다.



보육계 동향

지구촌민속박물관특별기획

방송인형극전

지구촌민속박물관에서는 1962년 TV개국부터 현재까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방송인형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한다. 현대인형극회와 현대인형 아카데미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 73년과 77년 KBS에서 방영한 '짱구박사'를 비롯, TV유치원의 '깡깡 마녀', '알리바바의 비밀', '아옹이와 까옥이' 등 20여점이 선보인다. TV를 통해 눈에 익은 인형들이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 일시 : 5월-8월
- 장소 : 지구촌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 개관시간 : 오전 9시30분-오후10시 (연중무휴)
- 문의처 : 773-9590

드림랜드 우주 대탐험

가자! 우주로

신비로운 우주에는 무엇으로 가득차 있을까? 과연 언제쯤 인간이 우주에 도달 할 수 있을까? 우주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채워줄 <드림랜드 우주 대탐험 가자! 우주로!>가 드림랜드 상설전시장에서 오는 12월까지 전시된다. 우주개척의 장(로켓모델, 우주카메라, 우주사진, 우주관련 관념, 우주왕복선등), 영상관, 체험의 장, 은하계관, 달의 관 등 총 5개의 전시장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는 우주에 관심이 있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것이다.

문의 : 982-6101

아이와 함께 하는 즐거운 놀이시간

PLAYWAY

3세이하 아동을 위한 놀이교육과 그 부모를 위한 상담 그룹 "PLAYWAY"에 참가할 대상을 모집한다. 영어나 한국어로 진행되는 놀이시간에는 여러가지 놀이와 게임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사회적,정서적인 성장과 함께 언어능력이 성장할 수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것이다.

- 놀이교육 내용 : 여러가지 놀이와 게임, 노래, 간단한 인사 배우기
- 시간 : 월-금요일까지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 정원 : 1그룹당 10명
- 장소 : 대한 성공회 주교좌성당내 구 주교관
- 연락처 : 722-1790
- 원장 : 김후리다(교육심리학 박사/현 국제장난감 도서관협회 회장)

99 서울보육교사회 외원 강좌

부모상담 기법

- 장소 : 여성평화의집 강당
- 일 시 : 6월 12일 오후4시-6시
- 대상 : 서울보육교사회 회원, 비회원
- 참가비 : 서울지부회원-각 지회에서 부담 비회원- 7000원

소식과 소식

1. 안보련토론

1. 지난 4월 19일(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홀리데이인 서울 무궁화홀에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주최로 「21세기 아동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보육정책·제도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는 올해 있을 예정인 영유아보육법개정과 관련하여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내놓고 더불어 정책과 제도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보육관련단체의 장 및 학계 시설종사자 등 약 70여명의 초청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영석(성균관대학교)교수의 주제발표와 변용찬박사(보건사회연구원), 이항재학장(순천향대 아동학과), 이소희교수(숙명여대 아동학과), 박선희교수(전북대 가정관리학과), 김호섭과장(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 정찬주교수(송원대 유아교육과), 도미향교수(동덕여대 보육교사교육원, 문원어린이집 원장) 등의 토론이 있었다. 우리 회에서는 정희연회장이 참석하였다. 이영석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1세기의 보육광화와 요구와 민간주도의 자율·경쟁·선택중심의 제도 정착을 위한 기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및 대치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그 방향성을 민간주도 자율보육체제화 방향, 보육서비스의 보편화 방향,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향, 보육서비스의 전문화 방향, 보육서비스의 지방분권화 방향,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정보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 4월 28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영유아보육법개정을 위한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중앙보육위원들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박사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발표와 중앙보육위원들의 각 조항에 대한 의견개진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우리 회에서는 정희연 회장이 중앙보육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는 법의 목적에서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목적

을 보편적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였고 새로이 이념조항을 삽입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존중과 어떤 조건에서도 아동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도입과 관련한 신설조항이 삽입되었다. 특히 이번 영유아보육법개정은 보육교사와 관련하여 변화되는 제도적인 부분이 많아 관심을 끌었다. 그외에 기존의 관련법정단체인 보육시설연합회를 보육연합회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 관련 학계와 단체의 관심을 모았다. 정희연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육위원회의 중요성(올해 초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지시로 보육위원회가 폐기되었음)과 보육정보센터 활성화의 문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재교육의 중요성 및 모든 보육교사가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자문회의의 결과를 수렴하여 보완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실직가정 자녀 겨울나기 사업 마쳤다.

본회가 올1월부터 3월까지 실업극복국민운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실시한 실직가정자녀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총2759건의 지원을 하였다. 지원사업을 마치며 설문조사를 하여 지금 통계처리와 분석작업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추후 다시 우리네 아이들을 통해 실을 예정이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너무 너무 애써주신 이선주, 최화영, 김향진, 김영금선생님, 그리고 각 참구마다 자원활동을 해주신 모든 선생님께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를~.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

본회가 특수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특수보육프로그램운영교육을 마쳤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송실대사회봉사관에서 실시한 이 교육은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

소식과 소식

으며 국내감사외에 국제발도르프킨더가르텐 연합을 통해 국외감사도 초빙하였으며 총90명이 참석하였다.

차세대지도자 훈련 및 교육사업 담당자 워크샵 실시

앞으로 우리 단체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들과 교육사업 담당자를 위한 교육이 지난 4월 17일, 18일에 걸쳐 대전 청소년수련관에서 있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 평가 및 향후 전망(정희연 본회 회장), 연구소모임 운영자 교육(윤선영 본회 전문위원), 상담교육(유정은 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특수보육 주제발표(이윤경, 윤은주선생님), 교육사업 수행 워크샵(최순옥 본회 사무국장), 인간관계 프로그램(유정은), 리더의 역할과 자세(정희연)를 내용으로 한 알찬 교육이 이루어졌다.

수도권 임시 이사회

서울지부와 수원, 안산 지회장이 참석한 5월 14일 수도권 임시 이사회는 서울지부의 제안으로 모였습니다. 총액 임금제에 대한 보육교사회의 입장 정리와 정책 개발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논의, 여름 연수에 대한 안건을 정기 이사회에 제안하기로 했으며 여름 연수를 경인지역은 공동 주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부소식

광주전남지부

•보육학교

4월22일-24일 3일간 보육학교가 있었습니다. 약 20여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전반적으로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아담하고 오목조목한 행사였습니다.

• 4월 28일과29일에는 전라남도 복지여성국장과 광주시 여성정책국장과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자리에는 이정미 지부장님과 김연금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 도담도담개원9주년 기념행사가 5월 2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저소득 아동들을 초청해 어린이날 선물을 증정하는 등 간략한 어린이날 행사도 함께 했습니다.

• 5월 정기모임이 5월23일 망월동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망월동 참배와 사업평가와 사업내용 나누기, 그리고 스승의날 자축연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지부

• 어린이날 행사 「99 가슴펴고 어깨 걸고」어린이 놀이 한마당(니킴 내강 일세구 조-오타)에 올해도 주관 단체로 참가하여 유아마당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 4월 16,17일 이틀간 이미애, 김희정, 정은아, 김계화, 안미경, 김정현 등 6명의 선생님들이 신입교사교육을 마쳤습니다.

• 제2회 교사 재교육이 6월 2일에 있습니다. 1회때 전래놀이예 이어 이번 주제는 「요리」입니다.

* 동래지회 노선희 선생님께서 특남하셨습니다.

서울지부

• 6월 12일 회원만의, 회원을 위한 강좌가 있습니다. '부모 상담 기법'에 대해 유정은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5월 16일 스승의 날 기념 '회원 자축 소풍'을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 지회소식

북부 : 색종이 접기 연구모임 진행중

(감사:주혜선 선생님)

바깥나들이 토론회,

나들이 일지 서울지역에서 공유

남부 : 신도림 가로공원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아동극과 유아마당 준비

국공립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120명

참석

서부 : 4월 22일 첫모임을 힘차게 시작

마포구 구립어린이집 국악소모임

(감사 : 고정미 선생님)

소식과 소식

인천지부

• 3월 20일 세쌍둥이 5주기 추모식이 새싹, 세쌍둥이 통합 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 박물관 교육 후 소모임이 꾸러졌습니다. 소모임장은 해맑음 어린이집의 김미현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 5월 15일에 햇살 어린이집 1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 현재 교사 재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서로 알고 사랑하며 나누기 위한 선택」으로 인성 프로그램이며 전체 5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5월 30일에 교사 아유회가 있습니다. 청량산 등반 후 송도 유원지에서 뒷풀이를 가질 예정입니다.

• 부천 동그라미 놀이방의 현희정 선생님과 희망세상의 조복순 선생님이 신입회원이 되셨습니다.

사람들

축하합니다

백혜경 선생님이 「희망세상」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현순 선생님이 「햇살 어린이집」의 원감이 되었습니다.

박은하 선생님이 특남을 하셨습니다.

임민행 선생님이 휴직을 하시고 인천 전문대 유아교육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사무국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그간 봉천지역의 씩씩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이경녀 선생님이 한국보육교사회 인턴사원으로 오셨습니다. 사무국 식구들은 북망이가 굴러왔다며 연신 흐뭇해 하고 있습니다.

개원을 축하합니다.

지난 4월 15일 3시에 근로복지공단 모아래 어린이집이 개원하였습니다. 심선경 원장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아래

가 아이들에게 늘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서울 북부의 우리아이들의 나라 우리 어린이집의 서미연 선생님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짝꿍을 찾아 전격 결혼을 발표하셨습니다. 6월 5일 오후 3시에 삼학회관에서 결혼식이 있을 예정이니 많이 축하해 주세요.

3월 14일에 결혼하신 임민행 선생님과 4월 18일에 결혼하신 안경아 선생님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외비를 내셨습니다.

(99년 3월 16일-5월 24일)

-올해부터 지부,지회회비로 전환기로 하였으나 아직 부분적으로 시행이 안되어 개인회비로 낸 곳과 지부, 지회회비로 낸 곳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부, 지회회비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서울-북부〉

최운진 (98년 12월, 99년 1~2월), 권미정 (1~2월), 박지예라(1~3월)

서미연 (2~5월), 황호정(2~5월), 김정숙 (3~5월), 장명신(2~5월) 김금옥(12~3월)

유은성(98년 12월~99년 4월), 윤은주(2월), 하수정(1~3월), 안경자(3월)

〈서울-남부〉

김정은(3~5월), 김옥희(4~5월), 차윤희 (3~4월)

〈서울-서부〉

추영(1~3월), 진경선(4월), 이윤경(3~12월)

〈경기〉

고영미(1~4월) 김영임(1~4월) 남향숙(1월~10월), 현희정(4~6월), 유필여(4월)

〈전북〉

이혜숙(1~10월)

소식과
소식

5월까지 전회원 완납(정회원 31명 일반회원 3명)

2월까지 전회원 완납

황미혜(8~12월), 서은희(3~6월)

박미정, 송정아, 김운석, 이정남, 서진심, 오
선영, 오세향, 이향화, 지규남, 안산보육정보
센터, 심미경, 전영임, 민경남,

김난희(5000원),고은숙(30,000원),정순옥
(100,000원)

본회 4·5월 활동일지

4월	6	집행위 회의
	6~7	2단계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아동 생활지도' 시작
	10~11	차세대지도자 훈련 및 교육사업 담당자 워크샵 개최
	13	집행위 회의
	15	정책개발위원회 회의
	20	집행위 회의
	26	독일강사 선생님들 한국도착 경주여행 출발 (윤선영 선생님 동행)
	28	독일선생님들 어린이집 방문 (임남희 부회장 동행)
	29~5/1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

5월	4	집행위 회의
	7	특수보육 프로그램 평가회 (윤선영 선생님 참가)
	11	집행위 회의
	14	수도권 이사회(임시회의)
	17	집행위 회의
	20	여언 복지위원회 회의
	24	정책개발 위원회 회의
	29	'99 제2차 이사회

조성환/이영 '둘이오 삼오후'



편지부에서

- '우리네 아이들' 많이 기다리셨죠.
2달에 한번이라는 기간이 실감나게 하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더우기 '특수보육프로그램 운영교육' 특집을 따끈따끈하게 실을려는 기획의도까지 겹쳐 더 늦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특수보육 프로그램 운영교육' 사후 자료집이 6월 중순께 나올 예정입니다.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자료집을 구입하셔서 (복음한 것을 전부 풀어쓴 것이니만큼 도움이 될것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참석하셨던 분들께는 모두 보내드리고요.
- '육아일기'는 필진의 개인사정상 이번 호에는 쉽니다.
- 이번호에는 자발적인 원고가 3~4가지 었답니다. 언제든지 본회로 글을 주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실고 있으니 자발적인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 더위가 물러오고 있네요.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려면

본회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지회나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각 단위에 회원신청서를 내고 정회원이 되기까지 준회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회원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 총회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회나 지부를 통하지 않고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의 관리 속에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총회, 수련회, 각종 세미나와 강좌-를 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에서 결정한 준회원회비(가입비)를 내고 정회원과 동일한 자료나 회지, 중앙의 연락을 받습니다. 또한 준회원은 1년 이내에 신입교사교육(필수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으로 되며 회원결정은 각 지부, 지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에서의 신입교사교육후 정회원이 되어 그 회원의 주거지, 보육시설 위치에 따라 지부, 지회가 있는 곳은 그 곳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지부, 지회가 없는 곳은 계속 중앙의 관리를 받으며, 이 회원들은 스스로 지역보육교사회를 조직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실제 교육프로그램 및 영유아 교육의 이론 등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실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교사회 지부나 지회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료회비를 입금하신 후에는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승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회원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 정보 제공

PC통신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 시설 홍보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 교사 알선

교사를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교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 연구 개발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 교사 교육

다양한 교육내용을 연구 개발하여 교사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이용

천리안 GO BABY

하이텔 GO BEBO

유니텔 GO BEBO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회원이 되시면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교육강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출강 연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and Research Center

서울시 중구 청량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TEL. 02)268-3954 FAX. 02)271-1548 ID KDIRC(천리안)